



明慧週刊



麥洪志 甲申年十二月二十七日



第1255期(2025.11.19) WWW.MINGHUI.ORG

한글판 1019호 minghui.or.kr



▲ 명혜망 제22회 중국 법회가 11월 9일 개막했으며, 이달 하순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주요내용

- 【중국법회】 남편이 심각한 교통사고를 당했지만 마음을 지켜 부부가 함께 기적을 만들다
- 【중국법회】 착실히 수련해 사상업 교란을 돌파하다
- 【중국법회】 다시는 아무도 우리집 문앞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지 않았다
- 【중국법회】 20여 년간 연로한 수련생들과 함께 수련을 견지하다

〈목 차〉

■ 중국법회

고위직 관료에서 자비로운 수련자로	3
남편이 심각한 교통사고를 당했지만 마음을 지켜 부부가 함께 기적을 만들다	15
착실히 수련해 사상업 교란을 돌파하다	21
수련생들과 묵묵히 협력하며 함께 나아가다	33
수련생 대가족이 함께 신의 길을 걷다	50
대법에 동화해 착실히 수련하며 사람 구하기에 박차를 가하다	57
다시는 아무도 우리집 문앞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지 않았다	69
20여 년간 연로한 수련생들과 함께 수련을 견지하다	77

【편집자 주】明慧周刊은 지면 제한으로 明慧網의 내용 중 일부에 불과하며, 대부분은 발췌문입니다. 본문은 글쓴이 개인의 현재 인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므로, 수련생들이 서로 교류하고 ‘比學比修’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위직 관료에서 자비로운 수련자로

글/ 중국 랴오닝성 대법제자

[명혜망]

사부님 안녕하십니까! 수련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1996년에 법을 얻은 대법제자이며, 올해 85살입니다. 29년간의 수련 길에는 기쁨도, 시험도, 시련도 있었습니다. 한길 우여곡절을 겪으며 넘어지기도 했지만 비바람이 지난 후 다시 무지개를 보았습니다. 더 많은 기억은 바로 사부님의 가지(加持) 속에서 이룬 비범한 여정이며, 그것은 마치 길을 닦는 주춧돌처럼 저 멀리 우리 천국의 집을 향해 계속 이어져 있습니다.

제22회 명혜망 중국법회가 열리는 지금, 제가 여러 단계에서 각종 방식으로 진상을 알려 세인을 구한 수련 체득을 사부님께 보고드리고 수련생들과 교류하며, 우리가 함께 걸어온 잊을 수 없는 세월과 대법이 이룬 모든 신의 기적을 함께 증명하려 합니다.

대량으로 제작하고 대면적으로 진상 자료를 배포하다

박해 초기, 우리 지역에는 큰 자료점이 하나 있었는데, 제작하는 진상 자료 공급량은 본 시와 주변 여러 작은 도시까지 미쳤습니다. 매일 제작한 진상 자료와 소모품은 모두 차로 실어 나르느라 수련생들은 밤낮으로 제작하고 배포했습니다. 어디서 왔든, 무슨 직업이든, 모든 사람이 대법제자의 직책을 실천했고, 아무도 힘들다거나 피곤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부족하면 늘 누군가 채워 넣었고, 자료점은 사부님의 가지(加持) 속에서 계속 평온하게 운영됐습니다.

자료점에 처음 왔을 때 저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 자발적으로 잡일을 맡았습니다. 밥하고, 청소하고, 심부름하고, 잔심부름을 하는 등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갔습니다. 이전에 저는 속인 중 직위가 비교적 높아 반평생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었지만, 그때는 정말 어린 승려처럼 사상이 단순하고 충실하며 즐거웠습니다. 그저 ‘우리가 자료를 한 부 더 만들면, 한 사람이라도 더 진상을 알게 된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정념이 매우 충족했고 일하는 효율도 매우 높았습니다.

이 기간에 저도 수련생들과 함께 대량의 진상 자료를 제작하는 동시에, 대대적으로 자료를 배포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포함한 많은 집착심을 제거했습니다.

이후 저는 진상 항목에 필요한 모든 진상 자료 제작을 배웠습니다. 컴퓨터와 프린터를 능숙하게 사용하는 것부터 전단지 편집, 소책자인쇄, CD 굽기, 《9평 공산당》(공산당에 대한 9가지 평론) 책자 제작, 호신부(護身符) 제작 등도 할 수 있게 됐고, 대법 서적도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자료점이 곳곳에서 꽃피움에 따라 저희 집도 ‘작은 꽃’(자료점)을 피웠습니다. 저 자신이 사용할 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수련생에게도 공급했고, 수련생들이 기본 운영 기술을 익힌 후 가정 자료점을 설립하도록 도왔습니다.

이 수련 과정은, 명령만 내리고 큰 보고나 하던 관료였던 저를, 저 자신도 생각지 못했던 자료점의 베테랑으로 만들었습니다. 할 줄 모르던 것에서 할 줄 알게 되는 과정은 바로 심성이 제고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수련생과 함께 지내는 과정에서 포용을 배웠고 책임을 배웠으며, 수련에서 점차 성숙해져 이후 다른 방식으로 진상을 알리는 데 견실한 기초를 다졌습니다.

휴대폰으로 진상을 알려 2년간 1만 명을 탈퇴시키다

인연이 닿아 2012년 봄, 한 외지 수련생이 우리 지역에서 휴대폰 항목으로 진상 알리는 일을 전개하도록 도왔습니다. 그는 이전에 오랫동안 배포한 진상 자료는 봄에 뿌린 씨앗과 같고, 지금은 가을걷이의 계절이 됐으니 우리가 기회를 붙잡아 직접 세인을 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수련생들이 교류한 후 보편적으로 이 방법이 확실히 좋고, 더욱 효과적이고 직접적으로 중생을 구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휴대폰으로 자동으로 음성 진상을 알렸고, 일정 시간 견지한 결과 효과가 매우 좋았습니다.

나중에 이 수련생은 또 저에게 휴대폰으로 직접 통화해 진상을 알리라고 격려하면서, 이런 방식이 ‘삼퇴(중국공산당의 당·단·대 조직 탈퇴)’ 품질이 비교적 높고 저에게 더 적합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정치 공작 간부 출신이라 속인 중에서 언어 소통이 강점이었기 때문에 수련생의 건의를 받아들여 휴대폰으로 직접 통화해 진상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말은 쉬웠지만 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이미 팔순에 가까웠고, 이전에는 휴대폰조차 잘 사용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휴대폰 두 대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한 대는 자동으로 번호를 측정해 유효한 번호를 추출해 전화를 거는 데 쓰고, 다른 한 대는 직접 통화하는 데 썼습니다. 게다가 저는 말이 심한 사투리라 표준 중국어가 아니었기에 고향 사람들에게 전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저와 인연이 있고, 언어가 통하며, 생활 습관이 같아 쉽게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보통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고향 분이시군요, 안녕

하세요! 온 가족의 행복과 평안을 빕니다! 제 고향이 바로 당신이 계신 그곳입니다. 저는 10여 세에 고향을 떠나 지금 거의 60년이 됐습니다. 지금 천리 밖에서 이 전화를 드려 당신에게 복을 전하고, 삼퇴해서 평안을 지키도록 도와드리려는 겁니다.”

고향 사람이라 친근하고 경계심이 없어 단번에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상대방이 말문만 트면 우리는 바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파룬파파(法輪大法, 파룬궁)의 진상을 알리고, 그들이 제기하는 문제에 답해주며, 때맞춰 미리 지어둔 듣기 좋고 길한 가명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들이 삼퇴한 후 저는 또 그들을 칭찬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향 분, 축하드립니다. 정말 기쁩니다. 아마 지금은 오늘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하고 위대한지 느끼지 못하시겠지만, 어쩌면 하늘의 신들께서 모두 당신을 찬미하고 계실 겁니다. 이 진상을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알려 그들도 어서 삼퇴해 평안을 지키도록 하신다면 당신은 공덕이 무량할 것입니다! 저는 파룬파파의 진상이 제 고향에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제 고향 사람들은 순박하고 선량하기로 유명해, 이렇게 말하니 많은 사람이 이로 인해 구원받았고, 3개월 만에 800명을 탈퇴시켰습니다. 이는 제 신심을 북돋워주었고, 마음속에 ‘1만 명을 탈퇴시키자’는 작은 소원이 생겼습니다. 저는 사부님께 저를 가지(加持)해주시길 청했습니다.

저는 2016년 5월 13일부터 전화를 걸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명절이나 휴일 개념이 없어졌으며, 가능한 한 하루도 해이하지 않았습니다. 봄에 7급 이상의 강풍이 불거나 여름에 큰비가 내려 통화 품질에 영향을 주는 날씨를 제외하고는 매일 반드시 나갔습니다. 속인의 명절과 휴일은 우리 대법제자가 사람을 구하기 좋은 기회입니다. 2017년 신년 기간, 저는 정월 초하루부터 초열흘까지 전화했는데(초이틀

은 가족과 모여 나가지 않음), 9일간 450여 명을 탈퇴시켰고, 하루 평균 50명, 가장 많은 날은 62명이었습니다.

직접 통화를 하려면 환경이 조용하고 안전해야 하므로, 저는 도시 교외의 작은 숲과 강변을 선택했습니다. 그곳은 사람과 차가 적고 시야가 넓어 상대적으로 안전했습니다. 길은 멀었지만 저는 체력이 넘치고 온몸에 힘이 솟아, 걸을 때는 바람이 일듯했고 자전거는 나는 듯이 빨랐습니다. 전화를 걸 때는 귀가 어둡거나 눈이 침침하지 않았고, 번호도 정확하게 눌렀으며, 머리가 맑고 사유가 민첩했으며 말도 유창해 효과가 아주 좋았습니다.

거기에 수련생들의 사심 없는 협력이 더해졌습니다. 모두가 통화 시간이 비교적 긴 번호를 전부 저에게 제공해, 제가 통화할 때 번호 목록의 질을 보장해주었고 ‘삼퇴’ 권유 성공률을 높여주었습니다.

북방의 겨울은 얼음과 눈 천지로 유난히 춥지만 저는 야외에서 매일 한 번 서면 4~5시간이 됐는데도 추위를 느낀 적이 없고, 오히려 때때로 덥고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고생하고 연마하며 업을 소멸하고 마음을 닦는 과정에서, 저는 자비로우신 사부님께서 제자가 사명을 완성하도록 가지(加持)해주심을 알았습니다.

초기에 가장 견디기 힘든 일은 바로 통화 중에 진상을 모르는 세인의 욕설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한번은 전화를 걸었는데, 상대방은 남성이었고 제 진상을 듣고 있는 듯했습니다. 제가 말을 마치자 그가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해 봐요?” 저는 또 한 번 말했습니다. 그가 다시 말했습니다. “못 알아 들겠어요. 다시 한번 말해요.” 저는 또 한 번 말했습니다. 저는 상대방이 못 알아들은 줄 알고 조금해서 진지하게 세 번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어이, 당신 사람 말도 할 줄 아네!” 전화를 끊고 나서 마음이 몹시 괴롭고 머리가 웅웅거렸으며 눈

물이 쏟아질 것 같았고, 당시 얼굴도 아마 붉게 달아올랐을 겁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감히 누가 나에게 이렇게 말하는가! 20대에 간부가 돼 일찍이 천군만마를 지휘했던 나다. 속인 중에서는 내가 남을 꾸짖기만 했지, 누가 감히 나를 이렇게 모욕한 적이 있었던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몹시 괴로웠습니다. 생각을 바꾸어 ‘욕해라, 욕하는 사람이 나에게 덕을 주는 것이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삼퇴’ 명단에 오른 수십 명의 이름을 보니 마음이 평온해졌고, 잘못됐다는 느낌도 사라졌습니다.

밤에 집에 돌아와 법공부를 하고 냉정하게 안으로 찾아보니 제가 틀렸음을 알았습니다. 저는 사부님 법상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머금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부님, 제자가 틀렸습니다. 앞으로는 다시는 속인의 덕을 원치 않고, 오직 그들이 모두 구원받아 평안하기만을 바라겠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이후로 모욕하고 욕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더니, 반년 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속인의 표현을 보고 자신의 사람 마음을 찾아 법으로 조금씩 바로잡으면 심성도 제고될 수 있으니, 이것은 좋은 일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작은 휴대폰 손에 드니, 그 자리에서 천하를 누비네. 입 열기 전에 자비가 먼저이며, 정념으로 사람 구하니 입에서 연꽃이 나가네. 시고 달고 쓰고 매운맛 한 접시 요리, 나를 배불리니 승화하기 좋구나. 대법제자 사부님 말씀 듣고, 세인 많이 구해 천국 집으로 돌아가네.’

2016년 5월 13일부터 2018년 7월 13일까지, 2년 2개월간 총

790일 만에 저는 마침내 당초의 서원을 실현해, 휴대폰으로 직접 통화해 진상을 알려 1만여 명을 탈퇴시켰습니다. 이는 당시 수련 경지의 저에게는 비범한 기적이었고 이것은 대법이 이룬 것입니다! 사부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바로 그날 밤 저는 선명한 꿈을 꾸었습니다. 황금빛 밀밭에 제가 직접 심은 밀이 사람 키보다 더 높이 자랐고, 밀 이삭은 한 자 남짓 길었으며, 산들바람이 불자 밀 물결이 굽이치며 끝없이 펼쳐진 풍년의 광경이었습니다.

이때 위대한 사부님께서 오셨습니다. 제가 사부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사부님, 제자가 심은 밀에 드문드문 모가 빠진 곳이 있습니다!” 사부님께서서는 웃으시며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산량에는 영향이 없다. 나는 그래도 비교적 위안이 되는구나.”

꿈에서 깨어났지만 행복감이 여전히 제 얼굴에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자비로우신 사부님께서 꿈의 경지로 저를 격려하고 일깨워주심을 알았습니다.

주변 도시와 농촌을 다니며 대면에서 진상을 알려 사람을 구하다

2018년부터 사악한 당이 휴대폰 카드를 엄격히 통제하기 시작해, 이 휴대폰 진상 항목도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대면으로 진상을 알려 세인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자주 가는 곳은 거주지와 인접한 3개 도시 구역과 주변의 20여 개 농촌이었고, 제 교통수단은 자전거였습니다.

매번 수첩에서 백여 부의 진상 자료를 가지고 가는데, 큰 책자, 작은 책자, 명혜 달력, 인터넷 우회 접속 카드, 호신부 등이 있었습니다. 배포하면서 말하고 삼퇴를 권했으며,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이 지역들에 다시 새로운 진상 자료를 보냈습니다.

세인을 대할 때 저는 친절한 말투로 자주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향 분(형님, 아우님, 여동생, 아가씨, 친구) 안녕하세요. 제가 복을 하나 드리러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대방에게 진상 자료나 호신부, 작은 카드를 건네거나, 열정적으로 대화를 시작해 진상을 알리고 삼퇴를 권하며 더 많은 자료를 보냈습니다. 많은 세인이 삼퇴를 선택한 후 연신 고마워했습니다.

전염병이 시작될 무렵, 저는 마침 병업 상태에 있었는데, 저를 이해하지 못한 가족이 제 설비와 진상 자료를 모두 가져가 버리고 제가 다시 밖에 나가 진상 알리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때 집에는 작은 호신부 240개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사부님 법상을 향해 말씀드렸습니다. “사부님, 제자는 사람 구하는 발걸음을 멈출 수 없습니다. 사부님께서 저를 가지(加持)해 주시길 청합니다. 저는 이 240개의 호신부를 중생에게 보내 그들이 평안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부님께서 매우 엄숙하게 저를 보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책임이 어깨에 있음을 느끼고 즉시 행동했습니다.

저는 아침 8~9시에 집을 나서 50~60리 길을 자전거로 달려 농촌으로 갔습니다. 처음에는 몸에 기운이 없어 중간에 피곤하면 아내가 챙겨준 따뜻한 차를 마시며 잠시 쉬었다가 다시 자전거를 탔습니다.

거의 사람을 보면 말했고, 오르막길을 가는 사람은 밀어주고 무거운 짐을 든 사람은 거들어주었습니다. 때로는 걸음을 재촉해 그 사람을 따라잡고, 때로는 속도를 늦춰 그 사람을 기다렸으며, 도울 일이 있으면 돕고, 말이 트이면 진상을 말했습니다. 자비심이 우러나와 자주 눈물을 머금고 말하며, 진심으로 중생이 모두 큰 재난을 피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저는 세인들에게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쩐싼런하오(眞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를 외우는 것이 영단묘약이
며, 삼퇴가 평안을 지켜줄 수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이후 제 몸에는 점점 힘이 생겼고 병업 가상(假相)도 사라졌습니
다. 가족들은 대법의 초범적임을 목격하고는 모든 설비를 다시 가져
와 설치를 도왔고, 저의 ‘작은 꽃’은 계속 피어났습니다.

저는 진상을 알리는 과정에서 몇 번 진상을 모르는 세인의 신고를
만났지만 모두 사부님의 보호 속에서 위험을 벗어났습니다.

한번은 시골에 달력을 보내러 갔다가 50세가량의 남자를 만났습니
다. 제가 진상을 알리니 그도 듣고, 자료를 주니 그도 받았습니다. 저
는 이상함을 눈치채지 못하고 계속 말하며 배포했습니다. 막 한 부인
에게 탁상달력을 주려는데, 승용차 한 대가 갑자기 제 앞에 멈춰 섰
습니다.

저는 ‘저 사람에게도 탁상달력을 하나 줘야겠다. 놓치면 안 되지’라
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탁상달력을 차 안의 사람에게 건네며 말했습
니다. “이것 좋습니다. 아주 유용해요. 하나 드릴게요!” 그가 말했습
니다. “주긴 뭘 줘. 당신 신고당했어. 우리와 함께 감시다!”

차 안에서 저는 그들에게 진상을 알리면서 사부님께 청했습니다.
‘사부님, 제자가 난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제자는 사부님께 먹칠하지
않고, 반드시 당당하게 모든 것을 내려놓기로 각오했습니다!’

동시에 저는 ‘내가 좀 부주의했구나. 힘을 아끼려고 왔던 길로 되
돌아가며 말하지 말았어야 했는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차에 태워 멀지 않은 곳까지 가더니 길가에 멈췄습니
다. 저를 신고한 그 남자와 다른 두 사람도 길가에서 구경하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경찰이 제 가방에 남은 자료를 가져갔고, 운전하던

경찰이 저를 데려가려 하자, 책임자인 듯한 경찰이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아니, 아니.”

그는 제 앞으로 걸어와 말했습니다. “됐습니다, 어르신. 무서워하지 마세요. 남은 물건들은 우리가 가져갈 테니 돌아가세요!” 저는 진상을 아는 이 경찰을 보니 정말 기뻐고, 그에게는 아름다운 미래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제가 자전거를 밀고 가려는데, 저를 신고했던 남자가 분이 풀리지 않는 듯 제게 말했습니다. “오늘 운 좋은 줄 아쇼. 아니었으면 최소 징역 4년은 받았을 거요!” 저는 미소 지으며 그에게 손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에게 아직 진상을 알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평소에 화제가 되는 뉴스를 적당히 보면서, 서민들이 모두 관심 있어 하는 일을 찾아 진상을 알리는 화제로 삼았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백신 접종 후유증은 아주 좋은 이야깃거리입니다. 길 가는 사람, 길가에서 더위를 식히는 사람, 물건 사는 사람을 만나면, 저는 다가가서 인사했습니다. “형님(아우님), 안녕하세요. 더위 식히고 계시네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백신 맞으셨어요? 별다른 반응은 없으셨고요?”

대답하는 사람 중에는 “머리가 어지럽고 온몸에 힘이 없어요”, “면역력이 떨어져서 온몸이 괴로워요”, “허리가 아파요”, “결절이 생겼어요”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말했습니다. “이게 아마 백신 후유증일 겁니다. 하지만 무서워 마세요. 제가 복을 드리러 왔습니다. 사악한 당은 사람들을 해치고도 돌보지 않으니, 진상을 알고 삼퇴해야만 평안을 지킬 수 있고, 그래야 큰 복이 따릅니다.” 대부분 사람이 진상을 들은 후

모두 시원하게 삼퇴를 선택했습니다.

한번은 한 남자가 제게 “왜 공산당은 파룬궁을 박해합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파룬궁은 사람들에게 진선인(眞·善·忍)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는데, 공산당이 하는 것은 가악투(假·惡·鬪-거짓, 악, 투쟁)의 수법입니다.”

“좋은 사람이 많아지면 나쁜 사람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거짓말이 들통나지 않겠습니까? 나쁜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 박해하는 겁니다!”

매번 시골에 갈 때마다 저는 자전거를 타고 왕복 100여 리 길을 가며, 매달 수백 명을 탈퇴시키고 천여 부의 진상 자료를 배포하며, 될 수 있는 대로 그 지역 중생에게 더 많은 대법의 복음을 남기려 했습니다.

85살인 저는 지금도 자전거를 타고 시골에 가는데, 벌써 다섯 번째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속인들은 이 나이면 진작 양로 단계에 들어서서, 침대에 누워 자녀의 보살핌을 받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입니다. 스스로 외출해 산책하며 양생을 중시하는 세인들도 약을 먹으며 유지합니다. 하지만 저는 대법제자로서 약을 한 알도 먹지 않으니, 이것은 대법이 창조한 기적입니다!

중국의 이런 생활 환경에서 상대적으로 제 연금은 비교적 높은 편이지만, 물질에 대한 요구는 이미 담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저와 아내는 매일 거친 차와 담백한 밥을 먹고, 입는 것은 모두 자녀가 입지 않는 헌 옷이며, 새 옷은 거의 사지 않고 어떤 고액 소비도 하지 않습니다. 아내는 제 수련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불평 한마디 없이 집안일을 도맡고 밖의 일 처리도 모두 아내가 해줘서 제가 더 많은 노

력으로 세 가지 일을 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사부님께서 제자에게 주신 수련 환경에 매우 감사드립니다.

수련 중에 해이한 표현이 있음을 알아차릴 때마다 저는 사부님의 한 단락 설법으로 자신을 일깨웁니다. “당신이 완전하게 이행하지 못하면, 당신이 담당한 당신에게 분배해 준 배후의 그러한 무량한 중생과 방대한 생명군(生命群)을 당신은 모두 구도하지 못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간단하고도 간단하게 수련에 정진하지 못하는 문제인가? 그것은 지극히 크고 지극히 큰 범죄이다! 비할 바 없이 큰 죄이다!” (각지 설법14-2016년 뉴욕법회 설법)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부님의 정법 과정이 어느 시기에 이르면, 그 시기에 대법제자가 완성해야 할 사명이 있다. 그것은 천상(天象)의 변화이고, 각 방면의 조건이 갖춰져야만 비로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다. 그 마을을 지나면 정말로 그 가게는 다시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사부님 말씀을 듣고, 사부님께서 주신 모든 사람 구하는 방식을 소중히 여기며, 모든 기회와 인연을 붙잡아 서약을 이행하고 우리 천국의 중생을 구해야 합니다.’

법에 있지 않은 부분은 수련생 여러분께서 자비롭게 지적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혜망 제22회 중국법회 원고)

남편이 심각한 교통사고를 당했지만 마음을 지켜 부부가 함께 기적을 만들다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2021년 연말 어느 날, 운송업을 하던 남편이 30여 톤의 화물을 싣고 정상 속도로 운전하던 중 잠이 들어 앞에 정차 중이던 화물을 가득 실은 대형 트럭과 충돌했습니다.

대형 트럭은 사고가 나지 않으면 괜찮지만, 한번 사고가 나면 속도, 무게, 관성, 충돌력이 모두 크기 때문에 보통 큰사고가 됩니다.

남편 트럭의 운전석 앞부분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남편은 병원으로 이송됐고 쇄골 골절, 경추 두 마디 이탈, 여러 곳의 갈비뼈에 실금이 가고 골반이 벌어졌으며, 오른손목 골절, 양쪽 종아리뼈가 부러졌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남편은 대법을 수련하지는 않지만 파룬따파가 좋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대법 진상 호신부(護身符)를 몸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대법 사부님 보우 아래 남편은 목숨을 건졌습니다. 의사는 몇 년 동안 이렇게 심각한 교통사고 환자는 본 적이 없다면서 우리에게 보험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우리는 농촌 합작 의료보험이 있었습니다. 의사는 그것은 소용없고 자비로 부담해야 하며, 20~30만 위안(한화 약 4~6천만 원)이면 치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시련이 왔음을 알았습니다. 저는 마음을 가장 밑바닥까지 가라앉히고 착실하게 자신을 수련해야 했습니다. 수련인의 기점에서 볼 때 매일 만나는 모든 것은 제가 수련해야 할 것이며, 무조건적으로 사부님과 대법을 믿고 진정으로 착실히 수련해야 합니다.

당시 전염병 때문에 남편의 병실은 1인실이었고 저는 매일 남편에

게 대법을 읽어주었습니다. 저는 ‘대법제자가 주인공이며 주변의 모든 것은 대법제자의 마음을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했기에, 제 마음을 지켜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법 외의 어떤 생각이라도 인간 세상의 이치로 형성된 관념이고, 그런 관념이 나타나면 그것을 분별하고 제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사람의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했기에, 사람의 생각이 생겨난 후에 다시 정념과 사람의 생각을 구분하고 그것을 수련해 없애는 번거로운 과정을 겪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사부님께 맡기고, 제가 매일 직면하는 것은 사부님께서 제게 주신 수련의 길이며, 사부님께서 제 마음을 보시므로 저는 제 마음과 모든 것을 사부님께 맡겼습니다.

남편의 첫 수술은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가 넘어서 끝났고, 수술 후 그는 거의 전신 마비 상태였으며 발만 좌우로 움직일 수 있었고 다른 부위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의사는 매일 방귀가 나왔는지 물었지만 남편은 없다고 했습니다. 의사는 사석에서 “방귀가 안 나온 것이 아니라 아마도 신경 어딘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감지하지 못하는 것일 수 있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표면 현상에 동요하지 않았고 사람의 생각이 떠오르면 그것을 해체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나중에 마비가 될까?’, ‘아이는 아직 학교에 다니는데 집안의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우리 가정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등등의 생각들입니다. 저는 이것이 사람의 생각이며, 인간 세상에서 형성된 이치라는 것을 알았기에 사람의 관념으로 형성된 이 껍데기를 해체해야 했습니다. 남편의 표면적인 상태가 어떻든 저는 사부님과 대법을 믿고, 법에 부합하지 않는 일체의 생각을 수련해 없애고, 수련인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렇게 심한 부상을 입은 남편은 두 번의 큰 수술을 겪었고, 26일 만에 퇴원했습니다. 기적 같지 않습니까! 의사는 “모두 외상이고 내장은 괜찮으니 집에 가서 요양하세요. 신경 부위가 어떻게 회복될지

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며, 베이징의 유명한 운동선수도 지금 휠체어를 타고 있는데, 베이징의 기술도 신경 부위는 보장할 수 없다고 예로 들었습니다.

남편이 퇴원한 후 시련이 닥쳤습니다. 그는 누워 있어야 했고, 밥도 먹여줘야 했으며, 대소변도 모두 처리해줘야 했습니다. 그런데 연말이라 작은 가게의 장사가 매우 바빠서 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것은 저의 수련의 길이며, 원망이 없어야 하고, 그를 위해 선(善)을 수련하고 마음의 용량을 수련해야 했는데, 제가 매일 접하는 모든 것은 밀라레파가 집을 짓고 허무는 과정과 같았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수련해 없애고, 자신이 수행의 길을 걷는 과정입니다. 저는 절의 어린 스님처럼 착실하게 자신을 수련했습니다.

남편이 퇴원한 지 사흘째 되던 날, 제가 하루 종일 바쁘게 일해 이미 지칠 대로 지쳤을 때, 오빠에게서 혈압이 높고 몸이 좋지 않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응급차를 불러 오빠를 병원 응급실로 보냈습니다. 결국 오빠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말 설상가상으로 집에는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제 마음을 지키고 무조건적으로 제 수련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분명히 알았습니다.

오빠는 이혼 후 제가 집을 마련해 주기 전까지 오랫동안 저와 함께 살았습니다. 오빠의 발이 차에 치였을 때 제가 돌봐야 했고, 난방비를 낼 돈이 없었을 때 제가 대신 내줘야 했으며, 사회 사람들이 오빠를 찾아와 싸우려 할 때 제가 막아야 하는 등등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와 오빠가 어떤 인연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카딸과 올케는 다른 성에 살았고 오랫동안 왕래가 없었지만, 저는 수련인의 기점에서서 정(情)과 이익을 내려놓고 조카딸과 협력해 오빠의 장례를 잘

치렀습니다. 오빠의 집값, 땅값, 휴대폰에 있던 돈을 모두 그녀에게 주었습니다. 오빠의 돈을 한 푼도 탐내거나 갖지 않았습니다. 당시 제가 수련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사부님의 요구대로 실천했습니다.

큰 시누이와 작은 시누이가 와서 남편의 교통사고 이야기를 시아버지에게 말하지 말고, 어른께 돈 이야기를 꺼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제가 제고해야 할 때임을 알았습니다. 저에게 이익심, 남들이 저를 도와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고, 이런 마음들을 내려놓고 원망하거나 집착하는 마음이 없어야 했습니다. 밤에 꿈을 꾸었는데 큰길에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줄지어 서서 길을 완전히 막고 있었지만, 제가 길에 나서자 그들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제가 올바른 길을 깨달았음을 알았습니다.

화물 터미널 사장이 사람을 시켜 차가 부딪친 후 화물에 파손이 있었지만, 차마 돈을 요구하러 오지 못했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저는 직접 사장에게 연락해 얼마나 손실이 났는지 확인했습니다. 사장은 자신이 직접 쓴 장부를 휴대폰으로 찍어 보내면서 1만 위안(약 200만 원)만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수련인은 빚을 지면 안 된다는 한 가지 점을 알고 있었기에 1만 위안을 이체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교통사고에도 파손이 이렇게 가벼웠으니 사부님의 보호에 감사드립니다.

시아버지는 남편이 20년 넘게 농사지은 땅값을 갖고 계셨습니다. 평소에도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해 수술과 치료비를 모두 우리가 자비로 부담하고 있는데도 시아버지는 상관도 안 하고 묻지도 않으며 땅값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시아버지의 경제적 조건은 마을에서 소문날 정도로 좋았습니다. 저는 마음이 불편했고 설날에는 누워 있는 남편을 간호한다는 핑계로 찾아뵙지 않았습니다. 정월 대보름에 작은 시누이가 우리집에 와서 “어른들을 찾아뵈었어야 하는데, 가지 않은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렇다

면 내가 잘못했구나, 설날에 집에 가서 어른을 뵙는 것은 전통이다. 잘못했으면 고쳐야지'라고 생각하고 선물을 사서 어른을 찾아뵈었습니다.

안으로 찾다

일반인과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기점 자체가 사람이라는 것인데, 제가 어떻게 이렇게 형편없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남을 원망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제가 구원해야 할 사람들인데 그들이 저에게 잘 하든 못하든 저는 선(善)으로 대하고 모든 것을 포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수련인과 일반인의 표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글을 쓰면서 더 깊이 안으로 찾아보니 저에게 원망하는 마음, 억울한 마음, 불공평하게 느끼는 마음, 일반인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사부님이 계시는데 세상의 무엇을 또 구하겠습니까? 이 마음들을 서둘러 제거해야 합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한 후, 둘째 시누이는 문병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안으로 찾아보았습니다. 몇 년 전 둘째 시누이가 저에게 시아버지 댁의 택지에 집을 지을 생각이 있냐고 물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때 저는 별생각 없이 “지어도 되고 안 지어도 돼”라고 말하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녀가 집을 짓고 싶었던 것입니다. 당시 제가 반응하지 못했기에 이제는 이 원한을 선(善)하게 풀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큰 시누이와 작은 시누이에게 이 일에 대해 먼저 말했습니다. “둘째 시누이가 짓고 싶으면 짓도록 하세요. 저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자발적으로 포기하자 둘째 시누이가 오빠를 문병하러 왔습니다. 온 가족이 화해했습니다.

남편의 몸도 나날이 변해갔습니다. 다리에 점점 힘이 생기고, 움직이지 못하던 팔도 움직일 수 있게 됐으며, 4개월 만에 땅에 내려와 걸을 수 있게 됐고, 반년 후에는 거의 정상으로 완전히 회복돼 조금의 후유증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는 이미 2년간 일하고 있으며 아

무도 그가 한때 전신 마비였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합니다. 사부님께서 제 남편에게 이 기적을 만들어주셨습니다. 사부님께 감사드립니다!

작은 시누이가 올해 차량정비팀에서 연금보험을 납부할 때 의무적으로 산재보험도 납부하도록 요구했는데, 오빠의 상황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일깨워주었습니다. 그래서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산재보험에서 1차 의료비로 10만 위안(약 2천만원) 이상을 보상해 주었고, 헌혈증, 백만 의료보험, 상대방 차량의 제3자 면책 조항, 산재 감정 비용 등을 계산해보니, 남편의 교통사고 모든 비용을 전부 보상받았습니다. 저는 제자가 정말로 사부님의 요구대로 착실히 수련했을 때, 사부님께서 안배해주신 결과는 틀림없이 가장 좋은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인터넷에서 의료 보조금이 있다는 것을 보았고 자신의 상황이 신청할 수 있다고 했지만 저는 동의하지 않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몸은 이미 다 나았고, 당시에는 전액 자비로 냈지만 지금은 의료비를 전부 보상받았으니 이미 아주 좋은데 너무 탐내서는 안 돼요.” 남편은 “이 일은 합리적이고 합법적이야. 내가 서류를 제출하고, 사람을 찾거나 연줄을 쓰지 않고, 주면 받고 안 줘도 강요하지 않을게”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처리했습니다. 결과 다음 달에 11만 위안(한화 약 2200만 원) 이상을 보상받았습니다. 저는 ‘그 이익심을 내려놓으면 당신의 것은 잃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사부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지난 일들을 되돌아보니 저에게 행복하고 온전한 가정을 주신 사부님께 감사드리고, 생활에 대해 걱정하지 않게 해주신 사부님께 감사드리며, 시련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줄곧 이끌어주신 사부님께 감사드립니다.

(명혜망 제22회 중국법회 원고)

착실히 수련해 사상업 교란을 돌파하다

글/ 중국 허베이성 대법제자

[명혜망]

존경하는 사부님 안녕하십니까! 수련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2회 명혜망 중국 법회를 계기로, 저는 올해 여름 방학 동안 사상업(思想業) 교란을 돌파한 착실히 수련 과정과 그 후 뒤따라온 몇 가지 작은 돌파들을 사부님께 보고드리고 수련생들과 교류하려고 이 글을 올립니다.

사상업 교란 돌파

사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강대한 업력이 있는데, 수련자에 대한 영향이 아주 큰 것으로서, 사상업(思想業)이라고 한다.”(전법륜)

2016년, 저는 아직 신수련생이었고 법리가 분명하지 않고 정념이 강하지 못해, 갑작스럽게 닥친 가정의 난(難)과 변고를 일시적으로 감당할 수 없었으며, 사람 마음, 사람 생각, 사람의 정에 압도되다시피 했습니다. 매일 머릿속에서 온갖 생각을 하고 잡념이 가득했으며, 명예, 이익, 정(情), 색(色), 기(氣, 분노) 등 때문에 많은 사상업이 생겨 머리가 답답하고 무거운 올바르지 않은 상태가 나타났습니다. 점차로 저의 왼쪽 머리 반쪽이 막히고 붓고 아팠으며, 심할 때는 왼쪽 얼굴과 왼쪽 목까지 불편했고, 왼쪽 머리 반쪽에서는 또 ‘딱딱’ 소리가 났지만 저는 줄곧 진지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들어 이러한 상태가 세 가지 일을 하는 데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깨닫고, 사상업 교란은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며 수련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실로 매우 크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교란은 정념을 발할 때 제가 1분도 고요해질 수 없고 머릿속이 요동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멸’(滅) 자를 응시하면 왼쪽 머리 반쪽이 답답하고, 막히고, 조이기 시작했는데, 마치 무엇인가에 붙잡혀 짹 쥐어져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심란해 정념을 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법공부할 때도 교란이 매우 컸는데, 읽다가 문득 터무니 없는 생각이 들어와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엉뚱한 곳으로 달아났고, 법공부가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아 금방 졸리곤 했습니다. 몇 년 동안 법공부를 할 때 깨닫는 바가 별로 없었습니다. 점차로 하루에 ‘전법륜’ 한 강의도 법공부를 할 수 없게 됐고, 오로지 법을 외워야만 법을 조금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연공할 때, 특히 한 시간 동안 포륜(抱輪) 동작 연마와 제5장 공법 가부좌할 때에는 더욱 몇 분도 고요해질 수 없었고, 엉뚱한 상상을 하고 잡념에 사로잡혔습니다. 서서히 마음이 심란해지기 시작했고 연공할 때 여러 번을 끝까지 견지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고비(關)를 돌파하기 위해 ‘主意識(주이스)가 강해야 한다’는 부분을 몇 번이나 외웠는지 모릅니다. 걸으면서 외우고, 잠들기 전에 외우고, 한가할 때 외우고, 법공부 전에 외웠는데, 효과는 좀 있었지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청정심’도 외웠는데, 며칠 좋아지다가 싶더니 다시 안 됐습니다. 사부님께서 말씀하신 “다시 말해서 사람이 고요해지지 못하는 근본원인은 무슨 수법(手法)상의 문제가 아니며, 무슨 절묘한 수(絕招)가 있어서가 아니라, 당신의 사상과 당신의 마음이 깨끗하지 않기 때문이다”(전법륜)라는 이 단락 법을 저는 여러 해 동안 읽으면서, 줄곧 ‘깨끗하지 않음(不淨)’을 ‘고요하지 않음(不靜)’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자신의 사상, 자신의 마음이 ‘깨끗하지 않은 것(不淨)’이며, 이는 ‘깨끗하다(乾淨)’의 ‘정(淨)’임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올해 여름 방학 기간에는 대부분 시간을 저 혼자 보냈기에 시간이 충분했으며, 저는 진지하게 깊이 파헤치고 착실하게 돌파하려 했습니다.

일사일념을 틀어잡아 심성을 수련하고 법으로 제거

저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들기 전까지 제 생각을 단단히 주시해,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즉시 배척했습니다. 저는 끊임 없이 사부님의 법을 암송했습니다. “主意識(주이스)가 강해야 한다”(전법륜), “마음이 반드시 똑발라야 한다”(전법륜), “견정(堅定)할 수 있는 사람은 업을 없앨 수 있다.”(전법륜), “나는 리홍쯔(李洪志)의 제자이다. 다른 배치는 다 필요 없고, 모두 승인하지 않겠다. 그러면 그것들은 감히 하지 못하므로 모두 해결될 수 있다. 만일 당신이 정말 할 수 있다면,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할 수 있다면 사부는 반드시 당신을 위해 처리해 줄 것이다.”(2003년 정월대보름 설법) 법을 외울 때는, 되도록 글자 한 글자가 눈앞에 나타나도록 했습니다.

연공을 시작할 때는 매우 고요했으나 잠시 후 ‘나의 직무 평가에 어떤 증거가 부족한데? 올해 방법을 찾아서 하나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재빨리 틀어잡아 사상업과 외부 교란을 거부했습니다. 동시에 안으로 찾아보니 이는 명리심과 조작을 일삼는 당문화(黨文化: 공산당 문화)이며 제거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저는 사부님의 법을 암송했습니다. 잠시 후, 또 다른 생각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가을옷이 나오면 운동복 바지를 사서 원래 있던 상의와 세트로 맞춰야겠다.’ 저는 재빨리 붙잡아 제거했고 이것은 옷을 차려입으려는 색욕심,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마음, 과시심과 함부로 돈을 쓰는 사치심이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사부님의 법을 암송했습니다.

잠시 후에 또 ‘조카들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한다’, ‘집 장식을 어떻

게 바뀌야 한다’, ‘누가 나에게 뭐라고 했다’는 생각들이 들어와 마음이 평온하지가 않음을 느꼈습니다. 이전 시부모님과 전남편이 저에게 그렇게 했던 것을 떠올리며 여전히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저는 제때 틀어잡아 제거했습니다. 동시에 안으로 가족 정에 집착하는 마음, 원망심, 안일심, 평상인처럼 편안한 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을 찾아낸 다음 사부님의 법을 암송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며칠을 견지하니 효과가 아주 좋았고, 머리에서 그러한 올라르지 않은 상태들이 사라졌습니다.

마음으로 법을 통독하고, 법에서 제고하다

전에 법공부할 때는 법리를 조금 깨달은 듯하면 자신을 대조하며 상상하기 시작했고, 생각하다 보면 엉뚱한 곳으로 새어나갔는데, 사실은 사상업 교란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자신에게 속도를 늦춰 한 구절 한 구절 또박또박 읽으라고 요구하며, 무엇인가를 깨닫고자 하지 않고 다만 표면적인 의미만 이해하려고 합니다. 어떤 생각이 들어오면 저는 책을 내려놓고 제때 제거했고, 안으로 저의 집착심을 찾았습니다. 몇 번의 시도 후 저는 조용히 법을 읽을 수 있게 됐고, 머릿속이 맑고 시원했으며, 결과부좌 해도 감각이 없었고 심신이 매우 편안했습니다. 때로는 책 위에서 작고 푸른빛이 한두 번 반짝이는 것을 보기도 했고, 때로는 한두 구절의 법이 특별히 명확하게 다가왔는데, 저는 그때 페이지 번호를 기억했습니다.

‘전법륜’ 한 강의를 법공부한 후, 저는 저에게 나타났던 이 몇 구절 법을 반복해서 읽고, 외우고, 썼습니다. 저는 지울 수 있는 펜을 샀는데, 매번 몇 번씩 쓰려고 했습니다. 제가 ‘전법륜’을 한 번 법공부한 후, 이 쓴 법들을 살펴보니 모두 저의 심성을 제고하라고 일깨워주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이 못난 제자를 일깨워주시고 제도하시는 사부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며칠 후, 제가 정념을 발할 때 고요해지는 횟수가 많아졌고 때로는 한 번 가부좌하면 바로 안정됐습니다. 포륜(抱輪)과 가부좌 때 고요해지는 시간도 길어졌고, 심란한 느낌이 사라졌고, 처음 수련했을 때의 오묘한 느낌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진정으로 마음이 ‘깨끗’해야만 마음이 ‘고요’해질 수 있음을 깨닫고 감개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병업 가상에 대한 무의식 중의 작은 돌파

제가 거주하는 곳은 북방의 댐 상류 지역인데, 이곳에는 한 종류의 썩이 자라나서 매년 7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이 기간 많은 사람에게 ‘알레르기성 비염’이 나타나게 합니다. 증상은 코가 가렵고, 쉴 새 없이 재채기하며, 콧물이 많습니다. 눈이 가려워서 비비면 붉어지고 부어오릅니다. 심할 때는 목구멍과 귓구멍이 다 가렵고 부어오릅니다. 피부가 가려워 긁으면 붉은 자국이 크게 생깁니다. 위험할 때는 코막힘, 천식과 호흡 곤란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병은 의학적으로 근치할 수 없고 점점 더 심해집니다.

2011년 여름 방학에 저에게 이 증상이 나타났는데, 당시 약을 사용한 후 그다지 심하지 않았습니다. 2012년 제가 법을 얻어 수련하게 됐고, 이 증상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저는 이것이 소업(消業)임을 알고 더는 의학으로 대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이 증상이 매년 어김없이 찾아왔고, 겉보기에는 점점 더 심해지는 듯했고, 몇 차례는 맹렬한 천식 가상(假相)까지 나타났습니다.

처음 몇 년 동안은 저는 이것이 소업(消業)이라고 여겼습니다. 나중에는 구세력의 교란이라고 느껴 정념을 발해 부정했지만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사부님의 선해(善解) 법을 사용했지만 문제의 근본을 찾지 못했고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좀 당혹했고 무력감을 느꼈으며, 심지어 이 계절만 되면 마음으로 걱정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했습

니다. 다른 사람이 재채기하는 소리만 들어도 심란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마도 몸을 뚫는 듯한 가려움과 닦아도 끝없는 콧물이 사람을 심란하게 한다는 것을 체감하지 못할 것입니다. 특히 법공부, 연공을 할 때 중간에 여러 번 멈추고 콧물을 닦았는데, 이는 사부님을 공경하지 않고 법을 공경하지 않는 것이고, 연공의 기제까지 흐트러뜨렸습니다. 게다가 매일 화장지 두세 갑을 사용해야 했고, 몸에 지니고 다녀야 했습니다. 때로는 외출할 때 쓰레기봉투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려 여기저기 쓰레기통 찾아다녀야 했으니 정말 번거로웠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증상이 나타나 저는 다소 소침해졌습니다. 그러나 사상업의 교란을 돌파하는 며칠간의 착실한 수련 중에, 저는 우연히 제가 고요해지기만 하면 어떤 증상도 없고 모든 것이 정상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평상인의 생각을 일으키자마자 코가 가렵기 시작했습니다. 법을 외워 고요해진 후에는 다시 정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저는 문득 외지 수련생 한 분이 이전에 해준 충고가 떠올랐습니다. “콧물은 뇌수(腦髓)이며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다.” 저는 당시 ‘콧물이 머리와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인가?’라고 생각했습니다. 몇 년 전에 사부님께서 이미 수련생의 입을 빌려서 저를 일깨워주셨는데 저는 오늘에야 비로소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은 마침내 가벼워졌습니다.

어느 날 새벽 연공 때, 생각이 도무지 고요해지지 않아서 저는 또 설 새 없이 재채기하고 콧물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수련생은 저에게 정념으로 부정하고 배척해야 한다고 일깨워 주었습니다. 저는 다시 일사일념을 틀어잡고 제거했고 점차 정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현재 이 가상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잠에서 깬 때만 반응이 비교적 강하게 나타날 뿐입니다. 저는 아직 제가 제고해야 할 요

소가 있음을 압니다. 앞으로의 매일, 심지어 매 순간, 저는 저의 일사 일념을 주의해야 합니다. 저는 또 저의 오성(悟性)이 부족하고 이렇게 여러 해 동안 심성에서 착실히 수련하지 않아 여러 번의 제고 기회를 놓쳤음을 진심으로 후회합니다. 이 뜻밖의 돌파는 제가 더는 소극적이지 않게 했고, 마음속으로 한 가지 생각, 즉 업이 있으면 소업하고, 교란이라면 절대로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확고히 했습니다.

낮선 사람에게 진상 알리기 돌파

저는 두려움, 체면, 염려하는 마음이 무거워서 이전에는 아는 사람이나 쇼핑할 때만 진상을 알렸고, 일 년에 몇 명에게도 알리지 못했습니다. 올해 여름 휴가 때, 저는 반드시 자신을 돌파해 낮선 사람에게도 진상을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대면해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까요? 무슨 화제를 이야기해야 하나요?

저에게 이런 염원이 생기자 사부님께서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우리 단지와 이웃 단지에 뇌졸중을 앓는 사람이 적지 않음을 보도록 하셨는데,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그들의 거동 불편한 모습을 보니 정말로 가련했습니다. 저는 병을 제거하는 부분에서부터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고 먼저 노인들에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첫날 외출해서 저는 10명에게 진상을 알렸는데 그들은 다 대법 진상을 인정했습니다. 삼퇴(중국공산당의 3가지 조직 탈퇴)를 권유했는데 7명이 탈퇴했으며, 그중에는 당, 공청단, 소선대에 가입했던 사람도 있었고, 3명은 아무것도 가입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사부님께서 저를 격려해주시는 것임을 알았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 후 매일 탈퇴를 권유할 수 있었고 학교에 다니지 않아 중공 악당 조직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까지 있었습니다. 저는 말할수록

더욱 입에 익었고, 말할수록 더욱 말하고 싶어졌습니다. 과정 중에 수련으로 제거해야 할 많은 사람 마음도 있었는데, 이는 사부님께서 말씀하신 행각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몇 가지 이야기를 공유합니다.

한번은 제가 외출해 진상을 알리던 중 아주머니 한 분을 만났습니다. 몇 마디 대화를 나누다가 그분이 제가 아직 수련하지 않고 이혼하기 전, 시어머니의 사촌 여동생(전에 만난 적이 없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수련하기 전에는 전신에 10여 가지 병을 앓았고, 아이를 낳을 수 없었으며, 여러 가지 다른 원인으로 인해 결혼 생활이 실패했습니다. 수련 후, 저는 중국공산당(중공)의 불법적인 박해로 한 번 구류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시대 식구들은 저에 대하여 편견이 매우 심했고, 저를 무시하고 비웃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그 집안의 친척을 만나자 저는 진상을 알리고 싶지 않았는데, 그들이 뒤에서 저를 두고 이러쿵저러쿵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이 체면을 차리는 마음, 명예욕임을 알았습니다. 저는 아주머니께 작별 인사를 한 후 떠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주머니가 굳이 저와 함께 좀 더 건자고 하셨기에 계속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저에게 이혼한 원인과 집안 대소사를 물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그분에게 진상을 알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망설이면서도, 대화하다가 화제를 돌려 제가 이전에 몸이 좋지 않았던 것, 그리고 지금은 10여 년 동안 약 한 알도 먹지 않았고, 중공 바이러스(우한 폐렴) 역병, 백신 그 모두 저에게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아주머니는 “당신 안색이 좋아 보여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곧 헤어질 상황인데 제가 진상을 알리지 않으면 아주머니에게는 기회가 없을 터였습니다. 아주머니가 대법제자 만나는 것이 얼

마나 어렵겠습니까! 이때 진상을 알리지 않으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그리해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체면을 버리는 것이 바로 사람을 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평온한 심태와 자비로운 어조로 아주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아주머니, 우리 두 사람이 오늘 만난 것이 쉽지 않은 인연입니다. 아주머니께서 건강하시고, 이처럼 재난이 빈번한 해에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돈이 들지 않는 좋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가 중공 악당이 부패했다고 이야기하니 아주머니는 매우 공감하셨고, 대법을 비교적 인정하셨으며, 수련하는 사람은 모두 지식인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주머니는 실명으로 중공 조직에서 탈퇴하셨습니다. 저는 아주머니께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찰싼런하오(真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를 기억하라고 거듭 당부드렸고, 아주머니는 “기억했어요, 기억했어요!”라고 여러 번 반복하셨습니다. 자비롭고 위대하신 사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렸습니다. 하마터면 인연 있는 중생을 놓칠 뻔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가 진상 알리러 갔을 때, 삼퇴한 중생 중에 ‘슈롄(秀蓮)’, ‘슈잉(秀英)’이라는 이름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식료품 시장에 가서 진상을 알렸는데, 삼퇴를 한 중생 중에는 ‘슈화(秀花)’라는 이름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세 사람의 중생은 모두 실명으로 탈퇴했습니다. 이틀 연속 ‘슈(秀, xiu)’ 자가 들어가는 이름의 사람이 있었는데, 저는 이것이 사부님께서 제게 자신을 ‘수(修, xiu)련’하라고 일깨워주시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모두 실명으로 삼퇴를 했는데, 이는 제게 진정하게 수련하고 표면적인 것에 머무르지 말라는 의미이고, 그렇지 않으면 ‘쇼(秀)’가 될 뿐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루는 밤에 귀가 어두운 네 사람에게 진상을 알렸습니다. 진상을 알릴 때 목소리를 높여야 하고 인내심을 가져야 했는데, 저는 말하면

서 가까운 곳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제가 수련으로 제거해야 할 두려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동시에 저는 참견하기 좋아하는 마음과 소문 듣기를 좋아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 며칠 동안 직장 동료들의 직무 평가에 작은 풍파가 있었는데, 저는 항상 알아보고 싶어 했습니다.

한번은 제가 진상 알리고 아파트 단지 입구로 돌아왔을 때, 한 중년 남성이 먼저 제게 말을 걸었고, 나중에 사람을 착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분이 인연 있는 중생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노인이 아니었고 또 남성이어서 저의 두려움과 염려하는 마음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분과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마음가짐이 바르지 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이혼했고 매월 저에게 2천 위안을 줄 테니 자신의 여자 친구가 되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다시 진상을 알리고 싶지 않았고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색마와 악당이 주입한 무신론 중독과 통제를 받고 있는 것이 정말 가련하다고 여겼으므로, 저는 용기를 내어 그분에게 이야기 해주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신을 믿는 사람이라서 이런 바르지 못한 일은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저에게 2억 위안을 준다고 해도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만 가지 악 중에 음란이 으뜸이니, 당신도 이런 일 하지 말고 바르게 가정을 이루세요.” 그분은 유감스럽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에휴, 부처를 믿는 사람을 만났네, 당신은 어떤 부처님을 믿으십니까?” 저는 그분에게 진상을 알려주었고 그분은 제가 파룬궁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는 “압니다, 그건 좋은 겁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가명으로 중공 악당 조직에서 탈퇴했습니다. 저 또한 저에게 아직 색욕심과 현대 변이된 관념이 있음을 찾아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진상을 알릴 때 예전 수련생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

분은 자신이 이전에 3년 동안 수련했는데, 1999년 ‘7·20’에 중공이 대법을 박해한 후 정말로 너무 두려워 수련을 그만두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자 매우 가슴 아프고 유감스러웠고 그분에게 기본적인 진상을 알려드리고 집 주소를 물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금종자(金種子)’와 사부님 신경문이 실린 ‘명혜주보’를 가져다드렸습니다. 그분은 “요즘은 좀 바빠서 며칠 후 제대로 볼게요”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보니 그분의 집 벽에 아주 커다란 마오쩌둥 마왕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어서 저는 그것을 찢어 구겨버리고 그분께 소각해야 한다고 알려줬습니다.

그 며칠 동안 진상 듣고 삼퇴한 중생의 다수는 70~80대 사람들이었는데, 정부 퇴직자, 조직 퇴직자, 마을 간부 퇴직자, 주민 대표 등이 있었고, 당원 수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사부님의 자비와 위대하심을 깊이 느끼게 했습니다. 26년 전 중공이 대법을 박해하기 시작했을 때 이 사람들은 당시 40~50대였습니다. 26년이 지나, 큰 재난과 대형 재난을 이렇게 많이 겪었지만, 사부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거듭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동시에 저는 저의 오성이 부족하고 사람 마음이 무거워, 저와 가장 가까운 곳에 거주하는 이 중생들에게 일찍이 진상을 알리지 못한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중공 바이러스(우한 폐렴) 역병이 있었던 이 몇 년 동안, 이 지역에서만 사망한 사람이 천 명에 달했으니 유감스럽습니다!

진상을 알리러 나오지 않았을 때, 저는 아직 사심을 품고 저의 수련 돌파와 제고를 위해 몇 명에게 알리든 상관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나와서 진상을 알리고 나서야 자신의 책임이 막중함을 깊이 느끼게 됐습니다. 만약 노인 집단만을 대면해 진상을 알리고, 게다가 일대일로 알린다면 언제쯤 다 구원할 수 있을까요? 무리 지어 춤추는 사람들, 카드 게임을 하는 사람들, 무리 지어 이야기하고 틱톡(抖 音)

영상을 찍는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까요? 제 마음은 매우 무거워졌습니다. 보견대, 저는 아직 더 정진해야 하고, 더욱 강한 정념과 더 큰 자비를 수련해 내고, 더러운 사람 마음과 변이된 관념을 수련으로 제거해, 더 많은 중생을 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한 달간의 여름 휴가가 눈 깜짝할 사이에 끝났고, 이상은 제가 여름 휴가 기간에 이룬 몇 가지 작은 돌파입니다. 제자는 자비롭고 위대하신 사부님의 가지(加持)와 일깨움을 잠시라도 떠날 수 없습니다. 제자는 사부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와 함께 법을 외우고, 교류하고, 새벽 연공을 위해 저를 깨워준 수련생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 교류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아무쪼록 바로잡아주시기를 청합니다.

(명혜망 제22회 중국법회 원고)

수련생들과 묵묵히 협력하며 함께 나아가다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를 수련한 후, 저는 수련생들과 함께 20여 년간 법을 실증하는 수련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묵묵히 협력하기도 했고, 밖으로만 보며 원망하기도 했으며, 자아를 내려놓고 서로 포용하는 홀가분함도 있었고, 정념정행으로 박해를 반대하는 위엄과 정기(正氣)도 있었으며, 대법제자로서의 영광과 자부심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법을 위해 왔기에 모두 수련생 간의 인연을 매우 소중히 여기며 서로 협력하고 함께 정진합니다.

제22회 명혜망 중국 대법제자 법회를 맞아, 제가 오랫동안 수련생들과 함께 법을 실증하며 협력해 온 일부 체득을 써서 사부님께 보고드리고 수련생 여러분과 교류하려 합니다.

컴퓨터를 배워 진상 자료를 만들다

1999년 7월 20일, 중국공산당(중공)이 파룬궁 박해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작은 마을의 대법제자들은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수련 환경을 개척해, 모든 방식을 동원해 전면적으로 세인을 구했습니다.

2000년 이전, 우리 지역의 진상 자료는 모두 다른 지역 수련생들이 제공했습니다. 나중에 한 수련생 언니가 외지에서 돌아와 우리 몇몇 수련생과 교류하면서, 명혜망에서 자료점을 곳곳에 꽃피우듯 세워 소형 자료점을 만들자고 제창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컴퓨터를 다룰 줄 몰랐고, 당시 자료를 만드는 데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느 자료점이 가택수색을 당하고 수련생이 경찰에 납치됐다는 소식을 자주 들었기 때문입니다. 언니는 우리와 법에서 교류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직접 명혜망에 접속하고 진상 자료를 만들면, 큰 자료점의 부담을 줄일 수 있

고, 수련생이 오갈 필요도 없어 안전하며, 우리 자신도 필요할 때 쓰기 편하다고 했습니다. 언니의 말을 듣고 우리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때, 우리 30대 수련생 몇 명은 남자 수련생 샤오쥔(小軍, 가명)을 따라 컴퓨터 조작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마우스도 쓸 줄 몰랐고, 막 배우고 나면 금방 잊어버렸습니다. 샤오쥔이 작은 자료점을 만들었는데, 하루는 저와 다른 수련생에게 진상 자료 제본을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때가 제가 처음 자료점에 가본 것이었습니다. 방에 들어서자 방안 가득한 자료와 설비를 보고 저의 두려운 마음이 불쑥 나왔습니다. 잠시 후 저는 ‘내가 하는 일은 가장 바른 일이고, 사부님께서 바로 내 곁에 계시니,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자 마음이 즉시 안정됐습니다. 이후 그곳에 다시 갈 때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우리가 자료점을 만들도록 도와준 수련생 언니가 외지에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다가 경찰에 미행당했는데, 그녀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저는 언니를 샤오쥔의 자료점에 데려다주고, 건물 뒤쪽 작은 길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언니에게 먹을 것을 좀 사주려고 먼저 마트에 갔습니다. 막 물건을 샀는데, 남편(수련생)에게서 전화가 와서 “빨리 가게로 돌아와요! 거긴 가지 말고”라며 다급하게 재촉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돌아온 것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고 보니 우리집 이웃이 가게로 와서 남편에게, 방금 길가 건물에서 파문궁하는 사람들이 잡혀갔고 건물 아래서 물건을 큰 차에 싣고 있는데 아직 안 떠났다고 말해줬던 것입니다. 마침 제가 그 시간에 언니에게 줄 물건을 사러 마트에 갔는데, 만약 바로 자료점으로 갔다면 함께 납치됐을지도 모릅니다. 샤오쥔도 경찰이 막 떠난 후에 돌아가서 그 시간을 피했습니다. 당시 언니와 한 여성 수련생이 납치됐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아직 영향을 받지 않은 소형 가정 자료점 두 곳이 계속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수련생의 독립된 작은 건물에

서 그녀와 함께 자료를 만들며, 우리 구역 수련생들에게 ‘명혜주간’과 진상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당시 쓰던 것은 1020 흑백 레이저 프린터였습니다. 그 시기 많은 수련생이 박해받아 직장에도 영향이 미쳤고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모두가 사람을 구하기 위해 어떤 이는 몇십 위안, 50위안, 100위안, 200위안을 내놓았고, 노년 수련생들은 평소 몇 위안씩 모아둔 돈을 가져오기도 했는데, 모두 수련생이 사람을 구하려는 진실한 마음이었습니다.

박해 초기, 저와 남편은 여러 차례 베이징에 가서 법을 실증했고, 남편은 불법 강제노동 처분을 받았으며 저는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남편은 1999년 7·20 이전에 보도원이었고, 우리집은 또 대규모 단체 법공부 장소였습니다. 현지에서는 제 남편을 중점 박해 대상으로 삼아 끊임없이 우리를 교란하고 감시했습니다. 2003년, 제 남편은 네 차례 납치됐고, 두 차례 불법 구류되었습니다.

중공의 박해로 경제 수입이 끊겨, 물건을 팔아본 적이 없던 우리는 체면을 내려놓고 길거리에 쭉그리고 앉아 사탕을 팔아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수련생들이 우리 생활이 어려운 것을 보고 가게를 하나 열어 생활을 유지하도록 도와줬습니다. 점차 우리 경제 사정도 나아졌습니다.

2005년, 현지 공안국이 파룬궁수련생들을 불법적으로 대규모 체포하면서 일부 수련생이 납치됐고, 삼퇴(중국공산당의 3가지 조직 탈퇴) 명단이 경찰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의 강압적인 심문으로 삼퇴 명단이 저와 제 남편에게 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 국보(국내안전보위대: 파룬궁 탄압 담당 공안기구) 경찰이 우리 지역으로 제 가게를 찾으러 왔는데, 제가 마침 가게 문을 열다가 경찰이 가게로 뛰어오는 것을 보고, 재빨리 문을 잠그고 남편과 함께 달아났습니다. 한 달 반 뒤에 우리가 집으로 돌아왔지만 남편은 결국 악명 높은 세 뇌반으로 납치되었습니다. 그가 불법 심문을 받을 때에야 우리집 전화

가 이미 도청되고 있었고, 경찰이 저와 시내 자료점에서 납치된 수련생과 연락한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시아버님께서 병세가 위중하셔서 남편은 세뇌반에 8일 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복직한 후 우리는 운영하던 가게를 넘겼습니다.

그 몇 년간, 우리집은 여러 차례 불법 가택수색을 당해, 저는 감히 프린터를 집에 두지 못했습니다. 수련생 샤오전(小珍, 가명)이 수련하지 않는 남편 몰래 컴퓨터와 프린터를 그녀 집으로 옮겨다 줬습니다. 그녀의 남편이 출근했을 때, 우리 둘은 함께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하루는 우리가 한창 자료를 만들고 있는데, 그녀의 남편이 갑자기 연장을 가지러 집에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미처 치우지 못했고 저는 조금 긴장했습니다. 샤오전은 정념이 매우 강해서 “보면 보는 거지, 괜찮아”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썩 둘러보고는 아무 말 없이 가버렸습니다.

이후 다른 수련생이 또 프린터를 사서 ‘9평 공산당(공산당에 대한 9가지 평론)’ 책자를 대량으로 제작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9평’이 배포하기에 부족해서 시내로 가지러 갔고, ‘당문화 해체’ 책자도 가져와 현지와 인근 농촌에 대량으로 배포했습니다.

하루는 샤오원이 와서 제게 “언니, 지금 외지에서는 다들 컬러 진상 소책자를 만들어. 컬러 잉크젯 프린터를 쓰는데, 자료가 아주 참신하고 예쁘게 나와. 언니도 한 대 사”라고 했습니다. 저는 “알았어, 한 대 사다 줘”라고 했습니다. 며칠 뒤, 샤오원이 4600 컬러 잉크젯 프린터 한 대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한 대로는 부족해서 한 대를 더 가져왔습니다. 만들어진 진상 자료는 깔끔하고 보기 좋아서 수련생들 모두 즐겨 배포했습니다.

연말에 수련생이 제게 진상 달력 만드는 법을 가르쳐줬는데, 우리가 진상 달력을 만든 첫해였습니다. 철제 링은 모두 저와 수련생이 손으로 눌러 만들었습니다. 수백 개 달력을 만들고 나니 손가락이 모

두 부었습니다. 때로 프린터 헤드가 막히면 저는 수돗물로 씻었습니다. 한번은 샤오쥘이 그것을 보고는, “누가 언니더러 이렇게 하래?! 수돗물에는 불순물이 있어서 정수된 물로 씻어야 해. 프린터 헤드 하나가 얼마인 줄 알아?”라고 급히 소리쳤습니다. 저는 “네가 말 안 해줬잖아. 내가 뭘 알겠어!”라고 했습니다.

그때 진상 CD, 선원 공연 CD를 민중이 즐겨 봐서 우리는 CD 복사기도 구매했습니다. 정법 노정이 앞으로 추진됨에 따라 수련생들은 모두 인식이 높아져서, 연세 많은 수련생을 제외하고는 모두 컴퓨터를 구매해 제때에 명혜망에 접속할 수 있게 됐고, 인쇄 용지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상의 감로를 곳곳에 뿌리다

20여 년간, 수련생들은 우리 작은 마을에서 대면하고 진상을 알렸고, 진상 자료를 거듭 배포해 진상을 듣지 못했거나 진상 자료를 보지 못한 사람이 거의 없으며, 기업 사무실에도 대부분 대법 진상 달력이 놓여 있습니다. 대법제자들이 끊임없이 진상을 알리자 지도층과 노동자 등 많은 이가 대법을 인정하고 파룬따파가 좋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구하는 일을 잘하려면 정체(整體) 협력이 관건입니다. 초창기에 수련생들은 모두 걸어 나와 자료를 배포할 수 있었습니다. 자료를 배포할 때 우리는 사전에 조율해, 각자 구역과 아파트 단지를 나눠 중복 배포를 피했습니다. 우리에게서 택시 기사 수련생이 둘 있는데, 시 외곽의 마을들을 훤히 꿰뚫고 있었고, 심지어 마을마다 몇 가구가 있는지도 대략 알고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진상 자료를 배포하는 데 많은 편의를 제공해줬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데리고 자료를 배포한 적 없는 외진 공백 지역에 많이 가줬습니다.

한번은 기사 수련생이 “오늘 밤 내가 자료 배포 안 한 곳으로 데려

다줄게요. 길이 외지고, 어떤 곳은 10여 가구밖에 안 돼서 시간이 오래 걸릴 텐데 가시겠어요?”라고 물었고, 몇몇 수련생이 모두 가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간 길은 정말 구불구불했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서니 10여 가구뿐이었는데, 집집마다 키우는 개들이 맹렬하게 짖어댔습니다. ‘어떡할까?’ 우리는 정념을 사용해 신속하게 한 집도 빠짐없이 자료를 배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주인이 나왔을 때 우리는 이미 차를 타고 떠난 뒤였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아주 외진 마을 몇 곳에 진상 자료를 전달해, 그들이 대법의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한 달에 몇 번씩 차를 몰고 아주 먼 외딴 마을로 가야 했습니다. 하루는 한 읍[鎮]내의 수련생이 우리에게 와서 책임자 수련생에게 “우리 쪽은 수련생이 적어서 많은 마을에 진상 자료를 배포하러 갈 사람이 없어요”라며, 우리에게 차를 몰고 그 마을들에 가서 진상 자료를 한 번 배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우리는 차를 배정해 때로는 두 대, 때로는 세 대가 가서 현지 수련생의 안내를 받아 그 읍내의 크고 작은 마을들에 몇 차례 진상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자료 배포가 순조로운지 아닌지는 우리 마음가짐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었습니다. 한번은 우리가 큰 마을에 자료를 배포하러 갔는데 두 사람이 한 조였습니다. 저와 한 수련생이 집집마다 문에 자료를 놓을 때, 가게에서 마작을 하던 사람들이 마침 흠어지고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우리 뒤를 따라오자 수련생이 제게 “저 남자가 우리를 신고하려고 전화하는 것 같아요, 우리 빨리 옥수수밭으로 도망가요”라고 했습니다. 저는 “도망가면 안 돼요. 그가 정말 신고하면 우린 도망 못가요. 우리 빨리 다가가서 진상을 알려요”라고 했습니다. 그 남자가 “당신들 뭐 하는 사람들이야?”라고 묻기에, 저는 “우리는 물건 훔치러 온 게 아니라, 여러분께 복음을 전하러 왔어요. 전염병이 이렇게 심각한데 역병을 피할 좋은 처방을 전해주러 왔어요”라고 했습니다.

수련생이 “당신은 선량한 분이니 우리를 신고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자료를 전하면서 당신들에게 바라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대법을 배우는 사람들이고 그저 당신들이 평안하길 바라는 거예요. 우린 다 좋은 사람들이예요”라고 말했습니다. 그 남자는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내리고는 잠시 생각하더니 “가세요. 다음부터 오지 마세요”라고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진상 플래카드를 거는 데 일가견이 있는 남자 수련생이 둘 있습니다. 플래카드에 쇠갈고리를 매달아 몇 미터 길이의 신축성 있는 낚싯대로 나무나 구조물에 거는데, 거의 실패가 없을 정도로 매우 능숙했습니다. 그들은 매년 많은 진상 플래카드를 걸었고, 여러 마을 길가에서 ‘파룬따파하오’ 플래카드가 펄럭이며 바른 에너지를 발산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차량과 행인 모두 볼 수 있어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한번은, 우리가 현지에서 많은 진상 자료와 스티커, 전시판을 만들었습니다. 읍 정부에서 대법제자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수련생들은 읍장과 다른 사무실에 진상 자료를 보내기로 상의했습니다. 하지만 곳곳에 카메라가 있었는데 누가 갈 수 있을까요? 저와 한 수련생이 이 일을 하기로 준비했고, 다른 수련생들은 집에서 정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종류의 진상 자료를 준비해 예쁜 봉투에 담았습니다. 우리 둘은 평상복을 입고 모자와 마스크를 썼습니다. 우리는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정념을 받았습니다. 정오쯤, 우리는 정부 사무실 건물로 가서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3층과 2층의 각 사무실 문손잡이에 진상 봉투를 걸어두고 순조롭게 돌아왔습니다. 나중에 정부 직원의 가족에게 듣기로, 정부 청사 안이 발각 뒤집혔고 읍장이 카메라를 돌려보며 자료를 놓고 간 사람을 찾으라고 했

다고 합니다. 우리 둘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구원받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부님의 보호가 있기에 아무도 감히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우리집이 가게를 운영하던 3년 동안, 저와 남편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가게에 오는 손님들에게 진상을 알렸습니다. 아주 먼 곳의 손님들도 우리집에 물건을 사러 찾아오곤 했는데, 사실은 모두 사부님께서 진상을 듣도록 안배하신 것이었고, 남편은 그들에게 모두 삼퇴를 해줬습니다.

음성 전화로 진상을 알리다

하루는 외지 수련생이 우리 지역에 교류하러 와서 요즘 많은 수련생이 휴대폰 음성 전화로 진상을 알리는데, 구하는 사람의 범위가 넓고 누구나 할 수 있다며 전화할 때의 안전수칙을 자세히 알려줬습니다. 우리는 듣자마자 너무 좋고 편리하다고 생각해 그 수련생에게 음성 전화 프로그램 설치와 전화번호 설정 방법을 배웠습니다. 전용 전화기와 전화 카드를 모두 갖췄고, 수련생마다 한두 대의 휴대폰을 구매했습니다.

막 음성 전화를 사용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무작위 전화번호로 진상 음성을 틀었습니다. 명혜 라디오의 진상 음성은 매우 포괄적이어서 많은 사람이 끝까지 들었고, 버튼을 눌러 삼퇴를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매일 수련생들이 받아낸 삼퇴 명단은 꽤 많았습니다. 때로 음성이 재생되는 중인데 상대방이 전화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고맙다는 사람, 욕하는 사람, 돈 달라는 사람, 심지어 잡으러 가겠다는 경찰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상대방과 대화하고 싶었지만 음성이 재생 중이어서 소통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우리 일부 수련생들은 직접 전화를 걸어 말하기로 했습니다. 평소 음성을 틀 때는 전화기에서 아무리 소리치고 협박

해도 저는 마음이 동하지 않았습니다. 하늘과 땅 차이로 멀리 떨어져 있어 저에게 닿을 수 없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화를 들고 진상을 알리려 준비할 때는 심장이 쿵쾅거리고 긴장돼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몇 차례 전화를 걸고 나니 마음이 안정됐습니다.

한번은 전화가 연결되자 한 남자가 “당신, 사람이 말하는 거요, 아니면 기계가 말하는 거요?”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음성 전화를 받아 본 듯했습니다. 저는 평화롭게 “사람입니다. 당신에게 안부를 묻고 있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사람들은 모두 평안하길 바라는데 어떻게 해야 평안할 수 있을까요? 제가 평안의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 전산런하오(真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 아홉 글자를 진심으로 염하면 됩니다. 많은 사람이 위급한 순간에 이 아홉 글자를 염해 위험에서 벗어났어요. 당신은 파룬궁을 아시나요? 삼퇴를 하면 평안이 보장된다는 것을 아시나요?”라고 했습니다.

그는 “그런 건 나와 상관없소. 당신들은 때도 없이 내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내 생활을 방해하고 있소”라고 했습니다. 저는 “서민이 돈 벌기 쉽지 않고 다들 자기 돈을 손해 보지 않으려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돈으로 전화비를 내가며, 당신들에게 큰 재난이 닥쳤을 때 평안히 남을 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대법 사부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한 중국인들을 구하라고 하셨어요”라고 했습니다.

저는 또 파룬궁 진상을 좀 더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어떤 신분 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고위 관리들도 다 당을 탈퇴하고 있어요. 누구도 중공의 순장품이 되길 원치 않아요.” 그의 태도는 많이 부드러워졌지만 여전히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가 벌써 30분이나 이야기했네요. 당을 탈퇴할지 말지는 당신 자신의 선택이고, 이건 당신의 생명과 관련된 일이에요. 기회를 놓치면 나중에 후회해

도 늦어요. 이제 전화를 끊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가 “누님, 저 탈퇴시켜주세요. 저는 당원입니다. 저에게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해줘서 고마워.”라고 말했습니다.

명혜망과 소통하며 박해 정보를 수집하다

2006년 이전, 명혜망에 보내야 할 일부 정보는 우리가 모두 현(縣)에 있는 수련생에게 가져다줘야 했습니다. 이후 수련생이 제게 사이트 내 메일함을 만들어줘서, 저는 명혜망에 소식을 보내는 법을 배웠습니다. 엄정성명, 법회 교류 원고, 그리고 납치된 수련생을 구출하기 위해 수집한 박해 기관 및 개인 전화번호 등이 있었습니다. 일부 경찰과 박해 기관 관계자들은 자신들의 전화가 불통이 될 지경인데, 전부 해외에서 걸려온 전화라고 했습니다. 해외 수련생들이 중국 수련생을 구출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과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매번 명혜망 중국 대법제자 법회 마감이 임박하면 원고가 산더미처럼 쌓여, 저는 수련생과 함께 밤을 새워가며 원고를 타이핑했습니다. 그때 저는 타자가 빠르지 않았고 문장 정리도 미숙해, 정말 피곤해서 머리가 어지럽고 눈이 침침할 정도였습니다. 원고를 정리하는 것 역시 마음을 닦고 인내력을 기르는 과정이었습니다. 어떤 수련생의 이야기는 매우 좋아 보였지만, 시간과 장소가 빠져 내용이 불완전했습니다. 어떤 것은 10여 쪽을 뿔뿔하게 썼는데, 틀린 글자가 수두룩하고 앞뒤 문장이 맞지 않았으며, 어떤 것은 병음으로 대체해 무슨 뜻인지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또 어떤 문장에는 문제가 좀 있었는데 수련생이 잘 인식하지 못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왕 모두가 나를 믿어주니, 그럼 내 층차에서 관문을 지키자.’ 저는 ‘나도 수련인이니 분명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거나 부적절하게 삭제한 부분이 있을 거야’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정리한 것을 다시 수련생에게 돌려주면, 가끔 수련생이 “그건 내가

고친 건데 왜 수정했어요?”라고 말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안으로 찾으며 많은 문제가 존재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아가 강하고, 남 가르치기를 좋아하며,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고, 심각한 당(黨)문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자신을 수련하는 것을 중시했고 다시 수련생의 문장을 정리하자 제 마음가짐이 변했습니다. 저는 마음을 다해 정리하고 수련생의 문장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마음을 다해 쓴 속마음이고, 글자 하나하나에 진심이 배어 있으며, 사부님께 보고드리는 답안지였습니다. 때로 저는 문장 속의 이야기에 감동해 눈물을 펄펄 쏟기도 했고, 수련생이 고비를 넘기면서 사부님을 굳게 믿고, 정념정행을 하며, 사심 없고 아량 있는 경지에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저는 저 자신과 수련생의 차이를 보았고 저의 부족함을 찾았습니다.

초창기에 명혜망은 중국 수련생들에게公安·검찰·법원·사법 부문과 기업 및 공공기관에서 대법제자 박해에 가담한 악인들의 악행을 수집하고 사진을 첨부하라고 건의했습니다. 저는 안전한 상황에서 현지의 대법제자를 박해한 악인의 정보를 수집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몇몇 수련생과 절충한 후, 우리는 이 일을 하는 목적을 명확히 했습니다. 수련인에게는 증오심이 없으며, 악인의 악행을 폭로하는 것은 박해를 제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단 그들이 잘못된 명령을 집행해 자신과 가족에게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아마 깨어날 수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참 신기하게도, 이 정보들을 수집하는 것은 매우 순조로웠습니다. 수련생들은 금방 당시 소속 기업의 지도부와 각 부서, 파출소의 박해 책임자 정보를 수집해왔고, 어떤 것은 사진도 첨부했습니다. 어떤 수련생은 회의 중에 우연히 회의실에 있는 박해자의 사진

을 보고는 지혜롭게 휴대폰으로 찍었습니다. 어떤 수련생은 결혼식에 참석했다가 여러 차례 대법제자를 박해한 파출소 소장을 보고는 얼굴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저와 수련생은 자전거를 타고 농촌의 촌위원회로 가서, 정오에 창문 너머로 대법제자를 박해했던 촌장의 사진을 찍었고, 구치소 악질 경찰의 정보도 입수했습니다.

한번은 몇몇 지역 책임 수련생이 함께 교류하는데, 시내 수련생이 우리에게 현지 20여 년간의 대법제자 박해 상황을 종합보고서로 작성해 명혜망에 올리라고 제안했습니다. 이전에 저는 명혜망에 발표된 시, 현의 박해 종합보고서를 보고, 현지 수련생들의 박해 사례를 통계내고 싶다는 생각이 진작에 들었지만 막상 하려니 난도가 너무 큰 것 같아 포기했었습니다.

아마 제게 그런 바람이 있어서인지 현지 책임 수련생이 이 항목을 우리 세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수련생이 이전에 수집했던 박해 정보를 모두 제공해줬고 그것을 분류하고 정리했습니다. 제가 보니, 이 항목은 작업량이 매우 방대했습니다. 수백 명이 박해를 당했고, 한 사람 한 사람 대조하고 확인해야 해서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해본 적도 없는데, 잘해낼 수 있을까요? 시내 수련생이 우리를 한차례 격려해줬고 그렇게 하기로 결정됐습니다. 시에서 종합 보고서를 작성해본 적이 있는 수련생이 우리가 방향을 잡도록 돕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도해줬습니다. 게다가 요구 사항이 아주 세세하고 엄격했습니다.

이후 저와 함께 종합보고서를 만들던 두 수련생이 일이 많아 모두 빠지고 저 혼자 남게 됐습니다. 종합보고서를 만드는 일은 정말 시간과 인내가 필요했지만, 저는 ‘아무리 어려워도 반드시 끝까지 해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매일 단체 법공부에 참가하고, 연공, 발정념을 거르지 않았습니다. 시내 수련생이 끊임없이 저를 격려해줬습니

다. 1년의 시간이 걸려 우리는 현 전체에 속한 향, 진의 20여 년간 박해 종합보고서를 정리해냈습니다. 다시 수련생의 검토, 보충, 수정을 거쳐 명혜망에 발표했습니다. 그 과정의 어려움은 단련이었고, 초조할 때는 인(忍)을 닦는 과정이었으며, 뿌리 깊게 박힌 적당히 얼버무리는 당문화의 것들이 많이 깎여나갔습니다. 돌이켜보면 사부님께서 저를 이끌어 위로 올려주신 것이었습니다. 박해 사례를 정리하면서 이후 글을 쓸 때 저는 좀 더 성숙해졌습니다. 저는 무엇을 하든 모두 자신을 성취시키는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지역의 종합보고서 작성을 계속 도와주던 시내 수련생이 제가 이 방면에서 경험이 생긴 것을 보고는, 시내 수련생들의 박해 사례를 정리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제 막 한숨 돌리려 했는데 또 일이 생겼구나’ 싶어 조금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가짐을 바로잡았습니다. ‘이왕 수련생이 나를 찾아왔으니 어찌면 사부님의 안배일 수 있고, 내게는 이 책임이 있으니 피할 수 없다.’ 저는 한 번 해본 경험이 있어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았기에 정리 작업이 좀 더 수월했습니다.

그 과정 역시 마음을 닦는 과정이었습니다. 때로는 한 사람의 정보를 몇 시간이 지나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인터넷에 보고된 정보도 완전하지 않아서, 찾다가 저는 수련생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보도할 때 왜 정보를 다 쓰지 않은 거야? 어디서 잡혔고, 어디서 판결받았는지, 시간은? 어떤 건 딱 한 줄인데, 이걸 어떻게 정리해.’ 그러다 문득 다시 생각했습니다. ‘당시 박해 상황에서 수련생의 정보를 조금이라도 알아내, 인터넷 봉쇄를 뚫고 명혜망에 올린 것만 해도 이미 매우 어려운 일이었어. 수련생은 이미 대단한 일을 한 건데 내가 어떻게 트집을 잡을 수 있지?’ 또 저의 원망하는 마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몇 달의 시간을 들여 수백 명의 박해 사례를 분류하고 정

리해냈습니다.

제가 억울한 감옥살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후 시내 수련생이 와서 제게 박해받은 경위를 폭로하는 글을 쓰라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박해를 폭로하는 자술서 한 편을 써서 명혜망에 발표했습니다. 하루는 수련생이 현지판 ‘명혜주보’를 들고 우리집에 와서 제게 물었습니다. “이번 주보에 당신의 박해 자술서가 실렸어요. 방금 우리 몇몇이 이걸 배포하기로 교류했는데, 먼저 당신에게 걱정되는 점이 있는지 물어보려고요. 현지 사람들이 다 당신을 아니까요.” 저는 “제가 감히 박해를 폭로한 이상 두렵지 않아요. 대량으로 배포해도 문제없어요. 사악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폭로예요”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세 곳의 현지판 ‘명혜주보’에 제가 쓴 박해 폭로 자술서가 실렸습니다. 우리가 납치됐을 때 명혜망은 끊임없이 국보 대대의 악행을 보도했고, 어떤 수련생들은 국보 대장과 판사에게 전화를 걸거나 진상 편지를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듣자 하니 그 국보 대장이 쉬지도 못할 정도로 압박감이 매우 크다고 했다고 합니다. 제가 집으로 돌아온 후 그 국보 대대에 불법 압수된 물건을 돌려달라고 찾아갔지만, 그 국보 대장은 자리에 없다고 거짓말을 하며 저를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함께 성스러운 인연을 맺다

저는 주위의 수련생들에게 깊은 인연이 있음을 느낍니다. 역사의 윤회 속에서 우리는 어쩌면 부모, 형제, 자매, 친척, 친구였을지도 모릅니다. 법을 얻은 초기, 우리는 함께 단체 법공부를 하고 연공을 했습니다. 외지에 가서 법을 널리 알리고 법회를 열었습니다. 사악이 미친 듯이 박해할 때, 누군가 넘어지면 하나하나의 따뜻한 손들이 그를 붙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누군가 미혹됐을 때 수련생들은 그를 포기하지 않고 사부님의 법으로 거듭 그(그녀)를 일깨웠습니다. 누군

가 박해받으면 모두가 전체를 이뤄 정념을 발하고, 법률을 이용해 박해에 항거했습니다.

법을 실증한 이 세월 속에서 저는 몇몇 수련생과 자주 함께 일했습니다. 수련생 샤오위(小玉, 가명)는 정념이 강하고 법리가 명확했습니다. 그녀는 사악의 소굴에서 정념으로 박해에 맞서며 타협하지 않았고, 박해로 병업 가상(假相)이 나타나자 경찰은 어쩔 수 없이 그녀를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우리 둘은 한 팀에서 10여 년간 법공부를 했고, 서로 묵묵히 협력하며, 함께 밖에 나가 진상을 알리고 진상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저와 샤오위는 좋은 파트너여서 자료를 만들 때도 빠르고 순조로웠습니다. 평소 상대방의 문제를 보면 솔직하게 지적해도 아무도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녀는 외지로 떠났지만 우리 둘이 함께 법을 실증했던 시간을 돌이켜보면 참으로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수련생 홍(虹) 언니(가명)는 저보다 세 살 많았는데, 저와 가장 많이 호흡을 맞췄습니다. 우리는 함께 일을 조율하고, 함께 기술을 배우고, 소모품과 설비를 사며, 수련생이 자료점을 만들도록 돕고, 함께 밖에 나가 진상 자료를 배포하는 등, 공동으로 협력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법을 실증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홍 언니는 마음가짐이 좋고 책임감이 있으며 조율도 매우 잘했습니다.

함께 일하는 시간이 길어지자 종종 갈등이 생겼습니다. 저는 입으로는 안으로 찾는다고 말했지만 여전히 일에만 매달려 밖으로 찾았습니다. 수련생들은 우리가 하루 종일 바쁘게 일하고 늘 외출하는 것을 보고, 우리에게 일 욕심이 존재하고, 법에 관한 일을 도맡아 하며, 수련생들의 칭찬을 즐기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저는 듣고도 수련을 그다지 중시하지 않았습니다. 한번은 저와 홍 언니가 수련생을 따라 자료를 배포하러 나갔다가 납치됐습니다. 저는 뼈아픈

반성을 했습니다. 평소 일만 하고 착실히 수련하지 않아 정체와 수련생에게 매우 큰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저와 홍 언니는 몇 차례 진솔하게 교류하며 법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바로잡고, 계속 책임을 다하며, 앞으로의 길을 바르게 걸어가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수련생 무춘(木純, 가명)은 법 암기를 잘하고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는 박해를 받아 퇴직금이 적었는데, 아내가 다른 도시에서 월급 많고 편한 일자리를 찾아줬지만 그는 가지 않고 수련을 중요하게 여기며 현지의 항목 업무를 맡았습니다. 그는 오토바이, 삼륜차를 타다가 지금은 승용차가 생겼는데, 도시와 농촌을 분주히 오가며 줄곧 법을 실증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이 있을 때 대부분 무춘의 차를 이용했고, 자주 함께 일하다 보니 부딪힘이 있었습니다. 저와 홍 언니가 자기주장을 고집할 때가 많았는데 무춘은 여러 차례 겸손하게 우리에게 양보했습니다.

한번은 구치소에 불법 감금된 수련생을 변호사와 접견하러 가는데, 약속 시간이 다가오는데 길은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홍 언니는 마음이 급해 동서남북을 마구 가리키며 무춘이 가는 길이 틀렸다고 우겼습니다. 무춘이 감정이 상했는지 차를 매우 빨리 몰았고, 구덩이를 만나도 속도를 줄이지 않아 제 몸이 펄쩍 튕겨 머리를 차 천장에 부딪쳤습니다. 저와 홍 언니는 길을 잘못 알려준 것을 알고 무춘에게 사과했습니다. 지난날의 협력 과정에서 저는 제 입장을 고집할 때가 너무 많았고, 늘 무춘이 틀렸다고 질책하며 언어가 날카로웠는데, 이는 명백한 당문화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반성했습니다. ‘나는 수련을 안 했구나. 머리를 부딪치고 나서야 안으로 찾다니.’ 다음 날 무춘을 만났을 때, 제가 그에게 사과하자 그는 허허 웃으며 아무 일 없었다는 듯했습니다.

수련생 메이(梅) 언니(가명)는 이성적이고 지혜로우며 조직력이 있습니다. 2001년, 제가 베이징에서 돌아와 가장 먼저 그녀를 찾아갔습니다. 우리 둘은 협력해, 직접 천을 사서 작은 ‘파룬따파하오’ 플래카드를 만들고, 양 끝에 작은 모래주머니를 매달아, 밤에 나가 나무 위로 던져 걸었습니다. 우리 둘은 또 진상 자료를 배포하고 진상 스티커를 붙이러 다녔습니다. 그녀는 일찍이 장사를 시작해 시간이 매우 빠듯했지만, 법을 실증하는 일로 제가 그녀를 찾아가면 그녀는 매번 가게 일을 제쳐두고 우리를 따라나섰습니다. 메이 언니는 수련생들이 법공부 팀에 참가하도록 합리적으로 안내하고, 밖에 나가 진상을 알려 사람을 구하며, 진상 편지를 쓰고, 박해받는 수련생을 구출하는 일을 매우 잘했습니다. 우리도 협력하는 과정에서 자주 마음 닦는 일이 생겼지만, 지나고 나서는 모두 안으로 찾으며 해소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늘 수련생이 제게 잘해준 것, 저를 도와준 것이 기억돼 있으며 항상 감사한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제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수련생들은 제게 사심 없는 도움을 줬습니다. 제가 사악의 소굴에 있을 때 수련생들이 제 가족을 도와줬습니다. 가족들은 대법제자의 경지를 보았고 대법제자들이 정말 훌륭하다고 거듭 칭찬했습니다.

20여 년 법을 실증하는 길에서 우리는 손을 맞잡고 함께 걸어왔으며, 어떠한 어려움과 험난함도 우리의 수련 발걸음을 막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계속 잘 협력하고 정념정행으로 사부님께서 우리를 위해 닦아주신 신이 되는 길을 함께 잘 걸어갈 것입니다.

사부님의 자비로운 제도에 감사드립니다! 수련생 여러분 감사합니다!

(명혜망 제22회 중국법회 원고)

수련생 대가족이 함께 신의 길을 걷다

글/ 네이멍구 대법제자

[명혜망]

자비롭고 위대하신 사부님 안녕하십니까! 수련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엄한 제22회 명혜망 중국법회를 맞아 제 한동안의 수련 과정과 체험을 써내 사부님께 보고 드리고 수련생 여러분과 교류하려 합니다.

수련생에게 거처할 환경을 제공하다

우리집은 수련하는 가정으로 저와 아내, 아들 모두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를 수련합니다. 갈 곳을 잃었거나 몸에 병업(病業) 상태가 나타난 수련생 등이 우리집에 와서 임시로 머물렀고, 우리집은 수련생들에게 머물 곳과 수련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법 공부하고 교류하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서로 도우면서 확고하게 정법 수련의 길을 걸었습니다.

우리 지역 몇몇 수련생이 박해를 당했는데, 불법 판결문에 A 수련생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소식을 듣고 우리집에 와서 몇 달간 간헐적으로 머물렀습니다. 이후 그녀는 또 B 수련생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중공 바이러스(우한 폐렴) 유행 기간에 A의 몸에 심각한 이상 상태가 나타나 기침과 발열 등 증상이 매우 좋지 않았고, 그녀는 다시 우리집에 왔습니다. 우리는 함께 법공부했고, 1개월여 만에 A의 몸은 정상으로 회복됐습니다.

D 수련생은 몸이 좋지 않아 입원했다가 병원에서 도망쳐 우리집에 왔습니다. 당시 친척이 우리집에 있었는데 D가 누구인지 몰랐고 그

녀의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것을 보고 감히 방으로 들이지 못했습니다. 저와 아내가 퇴근하고 돌아와 보니 D가 우리집 문 앞에 앉아 있었는데, 너무 말라서 물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얼른 그녀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당시 저와 아내는 근무 기간이라 직장에서 묵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수련생을 우리가 머무는 곳으로 데려와 밤낮으로 돌보며 물을 떠다 주고, 발을 씻기고, 얼굴을 닦아주며, 따로 죽을 끓여줬습니다.

D는 병원에서 도망쳐 나왔기 때문에 병원에서 환자를 찾지 못하자 그녀의 가족이 경찰에 신고해 사람들이 사방에서 D를 찾았습니다. 나중에 한 수련생이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분 댁에 있어요? 다들 찾고 난리예요. 경찰력까지 동원해서 찾고 있어요.” 아내는 이 말을 듣고 말했습니다. “만약 경찰이 오면 제가 여기서 처리할게요.” 새벽 1시가 됐지만 경찰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후 D의 친척이 그녀를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지나갔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와 아내는 아주 먼 시골로 C 수련생을 만나러 갔습니다. 저는 그와 함께 감옥에서 박해를 받은 적이 있어, 감옥에서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우리가 방에 들어서자 C가 침대에 앉아 있었는데 뇌졸중 증상을 보이며 땅에 내려오지 못하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작년부터 C가 땅에 내려오지 못했으며, 설 전날에는 거의 죽을 뻔했다고 했습니다. C 자신도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틀렸어요. 팔을 들 수도 없고 다리에 설 수도 없으며 연공도 할 수 없어요.”

집에 돌아와 저는 아내와 아들에게 이 상황을 이야기했고,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분을 우리집으로 모셔오면 되잖아요.” 그날은 큰 눈이 내리고 있었는데 아들은 두말없이 차를 몰고 가서 C를 우리집으

로 모셔왔습니다.

C는 몸이 좋지 않아 오랫동안 연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서 있지 못하고 팔을 들지 못해 아침에 연공하기를 꺼렸습니다. C가 연공할 수 있도록 아침에 연공할 때 저는 그의 뒤에 서서 그가 팔을 들 수 있게 도와주며 끊임없이 격려했습니다. “버텨요, 버텨요.” C는 정말로 버텨냈습니다. 연공을 마친 후 우리는 C와 함께 끊임없이 법공부하고, 발정념하고, 연공했습니다. 7일 후 C의 몸은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오기 전에는 제 아들이 차로 C를 우리집에 모셔왔는데, 7일 후 그는 놀랍게도 제 아들의 자전거를 타고 15km 떨어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아내는 매우 놀라고 감동해 전화로 말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이렇게 빨리 회복되다니! 정말 많이 변했어요! 집에서 땅에도 내려오지 못했는데, 이렇게 먼 길을 자전거 타고 집에 오다니요. 이건 정말 기적이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련생들이 함께 모여 대가족을 이뤘지만 각자의 성격이 달라 심성 마찰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제때 자신의 마음가짐을 바로잡고 안으로 찾으며 법 속에서 승화했습니다. 외지에서 온 E 수련생이 있었는데, 그녀의 남편이 박해를 받아 그녀는 갈 곳을 잃고 우리집에 와서 보름 넘게 머물렀습니다. E는 시골 사람이라 우리와 생활 습관이 매우 달랐고, 때로 저는 그녀의 일부 행동이 보기 싫어 말에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저는 즉시 안으로 찾았습니다. ‘수련생이 갈 곳 없이 떠도는 게 얼마나 힘든데,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내 말이 수련생에게 상처를 줬구나.’ 저는 그녀의 생활 방식이 익숙하지 않았지만 반드시 참아야 했습니다. 이후 저는 E의 일부 행동들을 모두 포용할 수 있게 됐고, 그녀가 우리집에서도 낯설어하지 않고 자기 집처럼 편안하게 느끼도록 했습니다.

저와 아내는 이전에 중공 악당에게 중형을 부당하게 선고받은 적

이 있으며, 현지에서 나름 알려진 큰 농장 집안에서 박해로 인해 집안이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박해 때문에 당시 우리집에는 빛도 많았는데 저와 아내가 아르바이트로 번 돈은 모두 빛을 갚는 데 썼습니다. 우리가 생활이 가장 어려웠던 몇 년간에도 병업 중인 수련생이나 갈 곳 없는 수련생들이 끊임없이 우리집에 머물렀습니다. 중공 악당이 우리 수련생들을 박해하니 우리는 수련생의 손을 굳게 잡고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수련생들의 마음은 모두 하나가 돼 서로 도우며 정법 수련의 길을 걸었습니다.

때때로 우리집에 물건 살 돈이 떨어졌을 때 우리는 수련생이 부담을 느끼거나 이 상황을 알고 떠날까 봐 걱정했습니다. 우리는 수련생들이 이미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저와 아내는 생활의 어려움을 참으면서 웃는 얼굴로 수련생을 대하며 우리가 궁핍하게 산다는 것을 수련생이 눈치채지 못하게 했고, 꼭 사야 할 생필품은 때로 가게에서 외상으로 사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매우 어려웠음에도 오가는 수련생들의 먹고 마시는 것과 일상 비용을 보장했습니다. 전기를 아끼기 위해 저와 아내는 겨울에 온수를 쓰지 않았지만, 수련생에게는 몰래 따뜻한 물을 데워주며 수련생이 눈치채지 못하게 했습니다. 수련생이 우리집 생활 형편을 물을 때마다 우리는 생활에 문제없다고 말하며 수련생의 걱정을 덜어줘, 수련생들이 우리집에서 안심하고 어려운 과도기를 넘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생활은 모든 것이 좋아졌고 수련 환경도 갈수록 좋아졌으며, 우리에게서 진상을 알리고 중생을 구하는 데 전력을 다할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생겼습니다.

사람을 구하는 길

우리의 생활은 한때 매우 어려웠지만 사람을 구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아내는 자주 오토바이를 타고 나가 진상 자료

를 배포하고 진상 현수막을 걸었으며, 사람을 구하는 발걸음을 멈춘 적이 없었고, 사람을 구하는 과정에서 많은 기적도 일어났습니다.

어느 해 눈이 많이 내리던 날, 저와 아내는 산길을 따라 근처 마을에 진상 자료를 배포하고 현수막을 걸러 갔습니다. 너무 멀리 갔기 때문에 돌아올 때는 이미 한밤중이었고, 길에는 큰 눈이 내려 길을 완전히 덮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망설이고 있을 때, 저는 눈빛에 비친 땅 위의 발자국 몇 개를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이 발자국을 따라 걸었고 끝까지 갔을 때 이미 집 문 앞에 도착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느 날 저와 아내는 오토바이를 타고 시골에 진상 자료를 배포하러 갔는데, 길을 가면서 길가의 마을에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하늘은 점점 어두워지고 길은 갈수록 멀어져 어디에 이르렀는지도 몰랐습니다. 우리는 ‘가는 데까지 가보자’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진상 자료를 다 배포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으려던 참에, 앞쪽에서 차 한 대가 다가왔습니다. 그 차의 헤드라이트가 비추는 곳이 바로 우리가 왔던 그 길이었고, 심지어 집으로 돌아가는 지름길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주 밤에 시골로 진상 자료를 배포하러 갔습니다. 한번은 우리가 자료를 배포하러 가던 길에 도로에서 아주 먼 곳에 불빛이 켜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곳이 분명 마을일 거로 생각했지만, 주변 지리에 익숙하지 않아 마을로 들어가는 길을 몰랐습니다. 갑자기 아주 먼 곳에서 차 한 대가 그 불빛이 있는 곳을 향해 갔고, 우리도 그 차의 방향을 따라가 이 마을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이곳의 중생들이 구원받을 수 있음에 매우 감격했습니다.

사부님의 보호 아래 우리는 진상 자료를 배포하는 과정에서 위험 속에서 기적을 만난 일도 많았습니다.

한번은 우리가 50km 떨어진 곳으로 진상 자료를 배포하러 갔습니

다. 당시 하늘은 아직 대낮처럼 밝았는데, 우리는 한 마을에서 진상 자료를 배포하다가 절반쯤 배포했을 때 한 여자가 대문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내가 다가가 그녀에게 진상 자료 한 부를 주며 보라고 했는데, 뜻밖에도 그녀는 “파룬궁 잡아라! 파룬궁 잡아라!”라고 크게 소리쳤습니다. 심지어 아내가 방금 진상 자료를 배포했던 집의 남자까지 불러냈습니다. 그 남자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이거(진상 자료) 가져가!” 아내는 방금 그가 문을 열어둔 운전석에 진상 자료를 놓았는데, 그는 차 문을 닫아버리고는 아내에게 자료를 가져가라고 다그쳤습니다. 아내가 그에게 차 문을 열라고 했지만 그는 또 열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여자는 끊임없이 “파룬궁 잡아라!”라고 외쳤습니다. 게다가 길가에서 차를 보면 닥치는 대로 가로막았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다가, 마침내 그녀에게 차 한 대가 멈춰 섰는데, 운전자는 마을 간부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차 안의 사람에게 우리를 신고했고 차 안에 있던 한 사람은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러했습니다.

상황이 매우 위급해지자 아내는 “사부님, 저를 구해주세요!”라고 크게 외쳤습니다. 그때 아내가 다시 그 남자의 차 문을 당기자 문이 순식간에 열렸습니다. 아내는 진상 자료를 꺼내 몸을 돌려 재빨리 그 사람들을 벗어나 작은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아내는 양 우리를 지나 옥수수밭을 가로질러 다른 거리에서 자료를 배포하던 저를 따라잡았습니다. 아내는 제게 방금 일어난 일을 말했고, 우리 둘은 함께 사부님께 구해달라고 청했습니다! 사부님의 가지(加持) 아래 우리 둘은 그 사람들을 벗어나 안전하게 빠져나왔습니다. 우리는 안전한 곳을 찾아 진상 자료를 숨겨두었다가 다음 날 다시 가지러 오기로 했습니다.

뜻밖에도 다음 날 밤에 큰비가 내렸고, 우리 둘은 오토바이를 타고

비를 맞으며 집에서 약 40km 떨어진 곳으로 진상 자료를 가지러 갔습니다. 비는 갈수록 거세졌고, 돌아오는 길에 우리가 반드시 지나가야 할 도로 한 곳이 비교적 낮아 이미 물이 고여 작은 강을 이루었는데, 깊이가 족히 1m는 넘어 보였습니다. 만약 오토바이가 지나가면 물에 잠겨 시동이 꺼질 것이었습니다. 이때는 이미 새벽 1시였고, 하늘은 흐리고 길에는 사람 하나 없었으며 집까지는 아직 35km가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초조해져 물가에서 서성였습니다. 바로 이때 뒤에서 높고 큰 대형 로더가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로더를 따라갔고 그것이 앞에서 물길을 가르자 우리는 그 뒤를 따라 작은 강을 건넜습니다. 우리가 반대편 높은 지대에 도착하자 갈라졌던 물길은 다시 망망대해로 변했습니다. 저와 아내는 모두 웃으며 생각했습니다. ‘깜깜한 한밤중에, 이미 새벽 1시가 넘었고 큰비까지 내리는데 어디서 로더가 온 거지?’ 우리는 사부님께서 제자들을 돕고 계심을 알았습니다.

오랜 세월 진상을 알리고 사람을 구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이런 일을 너무나 많이 겪었고, 그때마다 사부님께서 우리를 보호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사부님께서 항상 우리 곁에 계시며, 모든 것이 사부님의 자비로운 안배임을 깊이 알고 있습니다.

사부님의 자비로운 제도에 감사드립니다!

(명혜망 제22회 중국법회 원고)

대법에 동화해 착실히 수련하며 사람 구하기에 박차를 가하다

글/ 중국 랴오닝성 대법제자

[명혜망]

존경하는 사부님 안녕하십니까! 수련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2회 중국 대법제자 법회 원고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중국 대법제자들이 염원하던 성스러운 날이며, 사부님께서 이 특수한 역사 시기에 중국 제자들을 위해 마련해주신 특수한 교류의 장입니다. 우리는 이를 더없이 소중히 여기며, 그 속에 참여하는 것은 더욱 신성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저는 아래에 제 수련의 작은 부분이나마 사부님께 보고드리고,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의 비범함, 사부님의 성인과 무한한 자비에 대해 실증하고자 합니다.

법공부하며 마음을 닦으니, 개인적인 제고가 영원히 첫째 자리

저는 교회에 가까운 여성 대법제자이며 수련한 지 이미 26년이 넘었습니다. 다른 대법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피비린내 나는 살벌하고 가슴 졸이는 세월을 걸어왔고, 크고 작은 고비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부님의 길 인도와 보호 속에서, 사부님과 대법에 대한 굳건한 신념으로 오늘날까지 비록 비틀거리고 넘어지면서도 걸어왔습니다.

대법과 성스러운 인연을 맺은 후부터 저는 법공부를 매우 중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부님의 어떤 저작을 공부하든, 사부님께서 가장 많이 강조하신 것이 바로 제자들에게 법공부를 많이 해라, 법공부를 많이 하라는 당부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부님의 말씀을 듣고 법공부를 매우 진지하게 하며 절대 건성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오후에 제가 진상을 알리러 나가려 준비하는데, 서두르다가

저도 모르게 문을 잠그고 나갔습니다. 남편은 아직 집에 있었는데 말입니다. 그는 건강이 좋지 않아 뇌졸중 후유증이 있었고 걸음이 아주 느렸지만 매일 산책하러 나가긴 했습니다. 제가 돌아왔을 때는 이미 오후 5시였습니다. 아파트 아래층에 도착하니 이웃이 제게 “남편을 집에 두고 문을 잠갔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멍해져서 “아니요, 문을 그냥 닫고 나왔는데요”라고 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큰일 났네, 그가 분명 한바탕 난리를 피우겠구나.’ 남편은 성격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저는 스스로 마음을 안정시켰습니다. ‘나는 수련인이야, 속인에게 이끌리면 안 돼. 나한은 어떤 일을 만나도 싱글벙글 웃을 수 있지. 나는 더 높은 경지로 수련해 올라가야 하니 더 높은 법리로 자신을 요구해야 해.’

저는 마음속으로 사부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사부님, 저는 제고하고 싶습니다, 승화하고 싶습니다.’ 저는 아주 평온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갔습니다. 남편은 제가 돌아온 것을 보자마자 즉시 제게 소리쳤습니다. “왜 날 방에 가둬 놓은 거야?! 휴대폰도 안 갖고 가고, 도대체 무슨 생각이야?!”

저는 선의를 갖고 말했습니다. “화내지 말아요, 내가 매일 나가도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틀림없이 서두르다가 무심결에 잠갔나 봐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아이고, 이제 70이 다 된 사람이니 실수를 할 때도 있죠. 인생 한평생 쉽지 않은데, 우리 둘이 서로 책임지고 서로 포용해야죠. 당신은 몸도 안 좋으니 더욱 화를 내면 안 돼요…”

이 말을 듣자 그는 즉시 얼굴에 웃음이 가득해져서 말했습니다. “나 화 안 났어, 화 안 났어.” 저는 놀랐습니다. 방금 전만 해도 노기가 치솟더니 순식간에 바람이 멎고 물결이 잠잠해졌습니다. 대법은 정말 신기합니다! 사부님은 정말 위대하십니다! 저는 우리가 시시각각 자신을 수련인임을 잊지 않고, 대법으로 자신을 엄격히 요구하기

만 하면, 대법 속에서 끊임없이 제고하고 승화할 수 있음을 진심으로 깨달았습니다.

또 한번은 몇 년 전 시어머니 산소 이장 때의 일입니다. 남편에게는 누나 셋과 형 둘이 있었는데, 큰누나와 두 형은 모두 세상을 떠나고 남편과 두 누나만 남았습니다. 전통에 따르면 산소 이장은 아들의 일이므로, 자연히 이 일은 남편에게 맡겨졌습니다. 저는 그를 많이 이해했고, 게다가 제가 주동적으로 그 일을 맡았습니다. 일을 치르기 전날 밤, 저는 참석 가능한 사람들의 이름을 모두 작은 수첩에 적었습니다. 다음 날 일을 치를 때 그들이 돈을 낼 때 기억하지 못할까 봐 걱정돼서였습니다. 우스운 것은, 제가 정신없이 바쁘게 움직이면서도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다음 날 모든 일을 마치고, 모두가 큰 호텔에 모여 식사할 때 커다란 테이블에 사람이 가득 찼는데, 두 형님만 각각 돈을 냈고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속으로 씩씩하게 웃었습니다. ‘이렇게 명백한 이익심을 어째서 깨닫지 못했는가?’ 제 수련이 너무 형편없어 사부님께 걱정을 끼쳐드린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사부님께서 깨우쳐 주셨으니 저는 그것을 닦아 없애야 했습니다.

사실, 수련이란 바로 이렇게 각종 시련 속에서, 실제 수련 속에서, 넘어지고 부딪히면서 걸어오는 것입니다. 고비를 잘 넘기든 못 넘기든, 심성을 지켜내든 못 지켜내든, 이것이 바로 수련일 것입니다. 앞으로 저는 더욱 노력해 정진하고, 법공부를 잘하며, 자신을 착실히 수련하는 데 게으르지 않겠습니다. 개인의 제고가 영원히 첫째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은 이렇듯 신기하고 비범해

한번은 우리 네 자매가 부모님 댁에 땀감을 베러 갔습니다. 가을이라 모기가 아주 많아 귤가에서 ‘윙윙’거렸는데, 두 시간도 채 안 돼

언니가 우리를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금방 돌아왔니?” 언니가 대답했습니다. “모기가 우릴 잡아먹을 것 같아서요.” 그러고 보니 언니와 여동생의 등은 온통 모기 물린 자국으로 붉게 부어올랐습니다. 어머니는 급히 소금물로 두 사람의 등을 닦아주시고, 제 등도 닦아주려 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닦을 필요 없어요. 모기가 저를 안 물었어요, 보세요.” 어머니가 보시니 정말 자국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신기해하며 물었습니다. “모기가 왜 너만 안 무니?” 저는 “저는 수련인이잖아요, 몸에 에너지가 있어요. 그리고 사부님께서 대법제자마다 몸에 보호막을 씌워주셔서 나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매우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과륜궁은 정말 좋네!”

다음은 부모님에게서 일어난 신기한 일입니다. 부모님께서 살아계실 때 명절이 되면 우리 네 자녀는 모두 가족을 이끌고 부모님 댁에 모였고, 저는 그때마다 기회를 놓치지 않고 대법 진상을 알렸습니다. 모든 가족이 다 인정했지만, 아버지만은 중공 악당 당원이었기에, 비록 일찍이 중공 조직에서 탈퇴하셨지만 여전히 대법에 대해 반신반의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말년에 심장병으로 자주 입원하셨는데, 우리 네 자매가 교대로 어머니를 돌보며 한 사람이 하루 낮밤을 간병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사부님의 광저우 설법 녹음을 들려드렸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누가 간병하든 반드시 어머니께 설법을 들려드려야 해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도 설법 듣는 것을 좋아하셨고, 제게 참을 수 없이 웃음이 나는 이야기를 하나 해주셨습니다.

어머니 말씀으로는 아프기 전에는 마작을 즐겨 하셨다고 합니다. 하루는 집을 나서는데 집 문고리에 책(대법 진상 자료)이 한 권 걸려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표지가 예뻐서 어머니는 그걸 들고 마작방으

로 가셨습니다. 마작방에 들어서자 주인이 어머니께 물었습니다. “할머니, 뭘 들고 오셨어요?” 어머니가 그에게 “누가 우리 집 문고리에 걸어 놔는지 모르겠는데, 예뻐서 가져왔지”라고 하셨습니다. 주인이 받아들고 보더니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파룬궁 선전하러 오셨네!” 그들은 모두 제 어머니가 글을 모른다는 것을 알았기에 다들 하하 웃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진상 책자를 들고 진지하게 읽어보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사부님 설법 듣는 것을 좋아하셨을 뿐만 아니라, 제가 가르쳐드린 ‘홍음2’ 중의 시 한 수도 외우셔서, 제가 간병할 차례가 되면 제게 외워주시곤 했습니다. “수련은 어렵지 아니하나 마음 버리기 어렵노라 그 많은 집착 어느 때나 끊을꼬 고해(苦海) 끝없음을 모두 알거늘 의지 확고하지 못하면 고비는 산과 같나니 어이 속세를 벗어나랴” [홍음2-끊다(斷)(원곡)]. 저는 어머니께 힘을 북돋워 드렸습니다. 동시에 저는 ‘아버지가 매일 어머니 곁에 계시니 곁에서나마 법을 조금이라도 들으실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루는 또 제 간병 차례가 돼 방에 들어서자마자 여동생이 제게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둘째 언니, 아버지가 방금 나한테 어젯밤에 일어난 일을 말해줬는데 아직도 무서워하고 계셔.” 그녀는 제게 그 전날 밤에 일어난 일을 말해줬습니다.

어머니 댁은 100평방미터(m²) 넓이의 방 2개, 거실 1개가 있는 아파트 1층이었습니다. 남쪽 방에는 침대가 2개 있었는데, 2인용 침대 1개와 1인용 침대 1개였습니다. 어머니가 큰 침대를 쓰셨고, 아버지가 1인용 침대를 쓰셨습니다. 북쪽 방은 우리 중 간병 차례인 사람이 묵었습니다.

어젯밤 12시쯤, 어머니는 이미 깊이 잠드셨고 아버지는 아직 잠들지 않으셨습니다. 갑자기 방 문으로 검은 형체의 사람이 하나 들어왔

는데, 얼굴은 보이지 않았고 문을 여는 것도 보지 못했는데, 아버지 침대 곁으로 와서 섰습니다. 아버지는 극도로 놀라고 두려웠지만 말도 할 수 없고 몸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이 검은 그림자는 잠시 서 있다가 어머니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침대 사방에서 붉은빛이 하늘로 치솟았는데 매우 눈부셨습니다. 그러자 그 검은 형체는 순식간에 문을 통해 달아났습니다. 잠시 후 아버지는 비로소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정신을 차리셨습니다.

전 과정 동안 어머니는 알지 못하셨고 북쪽 방에서 자던 여동생도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빠, 그건 귀신이에요, 진짜 귀신이라고요. 아빠는 공산당원이라 무신론에 세뇌돼 중독이 너무 깊으세요. 사부님께서 자비로우셔서 이런 현상을 이용해 아빠의 무신론 관념을 깨뜨려주신 거예요. 아빠가 그때 말도 못 하고 움직이지도 못한 건, 놀라서가 아니라 귀신에게 제압당한 거예요. 그 귀신을 보세요, 그건 아예 문을 열고 닫을 필요도 없이 아무 데나 마음대로 통과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엄마를 보세요, 매일 사부님 설법을 들으시니 사부님께서 엄마를 보호해주신 거예요. 이제 부처와 귀신이 있다는 것, 천당과 지옥이 있다는 걸 믿으시겠죠?”

이 직접적인 체험은 아버지에게 파룬궁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했습니다.

대법에 동화하고 중생을 구하는 일은 절박해

대법제자는 모두 사부님께서 정법(正法)하시는 것이 이미 막바지에 이르렀음을 느끼고 있으며, 대법에 동화하고 중생을 구하는 것이 절박한 일이 됐습니다.

사부님께서 《2007년 뉴욕법회 설법》에서 제자들에게 일깨워주

셨습니다. “당신들은 기다릴 수 없다. 중생들이 박해받고 있고 도덕은 급속히 아래로 미끄러지고 있으며, 당신들이 구도해야 할 사람들이 갈수록 적어지고 갈수록 어려워지기 때문에 기다려서는 안 된다.”

사부님께서서는 《2009년 대뉴욕국제법회 설법》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해이해지거나 자신감을 잃지 말기를 바란다. 당신들은 이미 서광을 보지 않았는가? 사악도 끝장났고, 최후일수록 더욱 힘을 내야 한다. 대법제자가 마땅히 완성해야 할 일을 완성하고, 중생을 많이 구도하는, 그것이 바로 위덕이다.”

정법시기 대법제자이자 사부님께서 친히 전수하는 제자로서, 책임의 중대함과 사부님을 도와 정법하는 일의 절박함을 배로 느낍니다.

저는 매일 오전에 집안일을 마치고 법공부를 합니다. 11시가 되면 밥을 하고, 동시에 저녁밥도 미리 해놓습니다. 오후에 진상을 알리러 나가면 시간이 길어져 보통 5시에 집에 오는데, 그때 밥을 하면 남편이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점심 발정념을 마치고 출발하며, 저는 주로 공원에 갑니다. 길에서 ‘인연 있는’ 사람을 만나면 진상을 알리는데, 어떨 때는 혼자, 어떨 때는 수련생과 함께 갑니다.

저는 대면해 진상을 알린 지 거의 10년이 됐는데, 이전에는 다른 항목을 했습니다. 막 대면해 진상을 알리기 시작했을 때는 자주 말이 막혀 매우 괴로웠고, 수련생에게 배워도 잘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금씩 터득해 나갔고 수련생들의 이 방면 교류 문장을 보면서 점차 많이 성숙해졌습니다. 수련생의 문장이 제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진상을 알리는 과정은 저에게 아주 좋은 마음을 닦는 과정이었고, 제고하고 승화하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전염병이 가장 심각했던 기간에 평소 가장 변화했던 상가 거리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사람들은 띄엄띄엄 몇 명 없었고, 그나마도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건다가 키가 크고 마스크도 쓰지 않은 70여

세의 한 남성을 만났습니다. 저는 바삐 몇 걸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어르신, 어르신만 용감하게 마스크를 안 쓰셨네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죽을 사람은 마스크를 써도 소용없고, 죽지 않을 사람은 안 써도 죽지 않지.”

저는 “어르신, 그 말씀 참 마음에 드네요. 우리 서민들이 늘 말하길, 마음에 거리낄 짓 안 하면 귀신이 문을 두드려도 무섭지 않다고 하죠. 공산 악당이 온갖 나쁜 짓을 다해 하늘이 곧 멸망시키려 하는데 달아날 수 없습니다, 하나도 달아날 수 없어요. 공산 악당이 그렇게 많은 운동을 벌여 그토록 많은 중국 동포가 죽었고, 특히 문화대혁명이라는 대재앙은 중국의 5천 년 문명을 모조리 부숴버렸고, 무신론으로 사람들을 세뇌했습니다. 예전에 중국 백성들은 모두 천지신명을 경외했고, 결혼할 때도 반드시 먼저 천지에 절을 했습니다. 지금 보세요, 중국은 오염되고 혼탁해져 도박, 마약, 매춘이 널려있고, 가짜 상품이 판을 치며, 탐관오리는 부패가 극에 달했습니다. 특히 (파룬궁) 부처를 닮은 사람들을 박해하는데 하늘이 용서하겠습니까? 그 역병 신은 바로 그것을 향해 가는 겁니다. 사람이 다스리지 않으면 하늘이 다스리죠. 어르신, 당원이지요?”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그렇지, 오랜 당원이지”라고 했습니다. “어르신, 어서 마음속으로 탈퇴하세요. 하늘이 그것을 멸망시킬 때 순장당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만난 것도 인연입니다. 저는 파룬불법(法輪佛法)을 수련하는데, 대법은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으니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마음속으로 늘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찰싼런하오(真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를 염하시면 이 대재앙을 피하고 평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제가 ‘핑안(平安)’이라는 가명으로 악당 조직에서 탈퇴하는 걸 도와드려도 될까요? 당신의 평안과 행복을 빕니다.” 어르신은 연신 “좋지, 좋지, 좋은 말이네”라고 했습니다.

당시 대화 내내 저는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하루에 두 세 명에게도 진상을 알리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좋아져서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올해 초 어느 날, 저는 오후에 평소처럼 진상을 알리러 나갔습니다. 케이크 가게를 지나가다 남편에게 줄 케이크를 좀 사려 했습니다. 보니 줄을 선 사람이 꽤 많아서 사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없었거든요. 앞으로 50미터도 채 안 가 또 다른 케이크 가게가 있었는데, 케이크가 진열돼 있는데도 사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제가 창구로 가자 여사장이 손님이 온 것을 보고 바빠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아주머니, 케이크 사시게요?” 저는 이해가 안 돼 물었습니다. “앞에 있는 케이크 가게는 줄을 서서 사는데, 사장님 가게는 어째서 한 사람도 없어요? 케이크는 다 똑같은데, 왜 아무도 안 사죠?”

여사장은 어쩔 수 없다는 듯 쓴웃음을 지으며 “가끔 사는 사람도 있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고개를 들어 다시 보니, 계산대 맞은편 벽에 마오쩌둥의 큰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얼른 여사장에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가게 장사가 왜 이렇게 안 되는지 알겠어요.” 그녀는 제가 그 이유를 말해주길 기대하는 눈빛으로 기다렸습니다. “사장님 가게는 죽은 사람 사진을 모셔두고 있잖아요. 게다가 그는 하늘과 싸우고 땅과 싸우며, 사람이 하늘을 이긴다고 말하며, 하늘과 반대로 가는 마귀예요. 그러니 장사가 잘될 리가 있겠어요?! 그가 중국 인민에게 얼마나 큰 재난을 가져왔습니까! 지금 중국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 사회가 어떻게 변했는지 보세요.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을 모두 마오쩌둥 도적이 때려 부숴버렸어요. 지금은 부부 사이에도 속마음을 감추고 사는데, 누가 누굴 믿겠어요, 전부 돈만 바라보잖아요. 중국 전통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땅에 묻혀야 편안하다’고 해요. 저 마오쩌둥 도적은 죽은 지 50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저기 놓여

있고, 내장도 다 파냈잖아요. 중국 960만 제곱킬로미터 땅에 그것을 묻을 곳이 없겠어요!”

이 말을 듣고 여사장은 안쪽 방으로 달려 들어갔고, 잠시 후 안쪽 방 문에서 한 남자의 머리가 쑥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습니다. 여사장은 바로 나와서 마오쩌둥 사진으로 직행하더니, 손을 뻗어 사진을 찢어내고는 구겨서 던져버렸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인류의 도덕이 타락해 천재지변과 사건사고가 많고, 인류에겐 아직 큰 재앙이 남아있어요. 마음속으로 반드시 ‘파룬파파하오, 찌싼런하오’를 늘 염하세요. 신께서는 사람 마음만 보세요. 당신은 당원, 단원, 아니면 소선대였나요?”

그녀는 공청단과 소선대에 가입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제가 ‘싱룽(興隆)’이라는 이름으로 공청단, 소선대 조직에서 탈퇴하는 걸 도와드릴게요. 평안하고 즐거우며, 장사 번창하길 바랍니다.” 여사장은 기뻐하며 연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비록 매일 목이 마르고 혀가 마를 때까지 말하지만, 중생이 구원받고 진상을 알게 되는 그 순간의 기쁨을 보는 것이 제게는 가장 큰 위안입니다. 제가 사부님께서 저에게 하라고 하신 것을 했고, 중생이 구원받는 것이 바로 사부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번은 수련생과 함께 버스를 타고 공원에 진상을 알리러 갔습니다. 차에 올라 우리 둘은 뒤쪽 2인 좌석에 앉았고, 우리 앞자리에는 70대 초반의 여성 두 분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중 한 분이 목소리를 높여 격앙된 어조로 말했습니다. “지금 중국은 강대해지고 부유해져서 아무도 감히 건드리지 못해, 미국도 못 건드려. 올해는 반드시 대만을 점령할 거야!”

그녀는 말하면서 저를 쳐다봤습니다(우리는 대각선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련생이 제 다리를 치며 그녀에게 진상을 알리지 말라고, 구제불능이라고 눈치를 줬습니다.

저는 동요하지 않고 시기를 찾았습니다. 그녀가 다시 저를 보며 “정말이야, 중국은 지금 아무도 못 건드려, 전 세계에서 제일 강해. 미국도 소용없어”라고 반복해 말했을 때, 저는 미소 지으며 반문했습니다. “중국이 뭐가 제일 강하죠? 제가 알기로 중국이 가짜 만드는 건 세계 1등, 제일 강한데요.”

제 말을 듣자 그녀는 즉시 180도 태도를 바꿔 목소리도 낮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맞아, 그렇게 말아야, 그 독 분유가 얼마나 많은 아이를 해쳤어…” 우리 둘의 대화를 주위 승객들이 조용히 듣고 있었는데, 아쉽게도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두 여성도 우리와 함께 내렸고 이곳에서 환승을 기다렸습니다. 두 사람 모두 교사라는 것을 알게 됐고, 저는 계속해서 그녀에게 진상을 알렸습니다. 전통에서부터 중공 악당의 정권 찬탈까지, 역대 정치 운동에서부터 파룬궁 박해까지 이야기하자 그녀는 매우 공감했습니다. 수련생도 다른 여성에게 진상을 알렸습니다. 마지막에 두 사람 모두 진상을 명백히 알게 됐고, 기쁘게 악당 조직을 탈퇴했습니다.

사실, 우리 모든 대법제자는 진상을 알리는 과정에서 각양각색의 중생을 만나게 됩니다. 욕하는 사람, 돈을 요구하는 사람, 신고하는 사람, 심지어 때리는 사람까지… 저를 우리가 자아를 내려놓고 관념을 바꾸며, 속인의 모든 것에 이끌리지 않기만 하면 된다고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바로 사부님을 도와 정법(正法)하고 중생을 구원하러 왔으며, 이타적인 생명을 성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모두 사부님께서 우리에게 해내라고 요구하신 것이며, 또한 사부

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수련 과정을 돌이켜보면 우리의 제고와 승화, 진상을 알릴 때의 지혜, 혹은 우리가 넘어온 때 하나의 고비와 어려움은 모두 사부님의 심혈과 노고가 스며 있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만약 사부님의 시시각각의 깨우침이 없었다면, 사부님의 보살핌과 인도가 없었다면, 우리가 또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부님의 성은과 대법의 무변한 법력(法力)이 천만 대궁(大穹)의 왕(王)과 주(主)들을 성취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배로 정진하며 힘써 앞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사부님께 보고드리고 싶은 것이 너무나도 많지만, 일단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부님, 부디 안심하십시오. 끊임없이 깊이 법공부를 하는 속에서 저는 끊임없이 대법에 동화할 것입니다. 사부님의 인도와 가지(加持)가 있으니, 저는 마지막 사부님을 돕는 정법의 길을 잘 걷고, 안정되게 걸으며, 바르게 걸어갈 것이고, 사부님께서 요구하신 세 가지 일을 하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비록 때때로 일부 사람의 마음과 관념이 드러나기도 하지만, 그것은 이미 뿌리가 없습니다. 사부님께서는 “병근(病根)은 이미 떼어버렸고, 남은 요만한 검은 기, 그것이 스스로 나오게 하여”(전법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제 느낌이 바로 이렇습니다.

사부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진상을 알리고 중생을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당신이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제외하고 당신이 해야 할 것은 없으며, 이 세상에서 당신이 해야 할 것은 없다.”(2015년 뉴욕법회 설법)

사부님, 제자는 기억했습니다! 기억했습니다!

은사님께 절을 올립니다! 사부님 감사합니다!

(명혜망 제22회 중국법회 원고)

다시는 아무도 우리집 문앞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지 않았다

— 정념과 지혜는 법에서 나온다 —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제22회 명혜망 중국법회에 즈음해, 저는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를 수련한 약간의 체험을 써서 자비롭고 위대하신 사부님께 보고드리고 수련생들과 교류하려 합니다.

정념이 충만하니 신기함이 나타나다

어느 날 현지 공안국 5명이 우리 가게 문앞(즉 상가가 출입구에 설치한 간판 및 관련 시설)에 와서 전신주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저는 이 가게가 수련생들이 전체적으로 협력해 법을 실증하고 사람을 구하는 수련 환경이며 서로 교류하고 함께 제고하는 수련 환경이니 그 누구도 교란할 자격이 없고 구세력의 안배를 전면 부정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이 몇 사람이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 저는 절대로 그들이 여기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그들 앞으로 걸어가 물었습니다. “누가 당신들더러 여기에 설치하라고 했나요?” 그들은 “국장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사람의 관념과 사람의 사유를 철저히 바꾸고 두려운 마음을 제거해 본질적으로 자신을 바꿔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방문을 닫고 즉시 정념을 받았습니다. 저는 사부님의 가지(加持)를 청하며 구세력의 박해를 절대 인정하지 않고 저의 모든 것은 사부님께서 결정하신다고 했습니다.

사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연공인(煉功人)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할 때면 그의 공능이 작용을 일으키는 것이다.”(전법륜)

저는 대법제자의 정념은 위력이 있다고 깨달았습니다. 저는 강대한 정념으로 한 줄기 한 줄기 백색 광선(에너지)을 발사해 전신주와 감시카메라 그리고 전선 안의 프로그램을 모두 어지럽히고 다른 공간의 사악한 요소를 철저히 제거했습니다. 잠시 후 밖에서 누군가 “이 감시카메라는 영상이 나오지 않는데 바꿔봐”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정념이 작용을 일으켰다는 것을 알고 계속 정념을 발했습니다. 5분 후 또 누군가 “이것도 고장 났는데 또 바꿔봐”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한 시간 정념을 발한 후 문을 열고 나가 보니 그들이 전신주 안의 전선을 모두 새것으로 바꿨고 전선도 고장 났다고 말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현 전체의 각 길목과 각 주택단지에 설치한 것은 모두 좋은데 왜 이 전신주만 작동하지 않을까? 이상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오전 내내 감시카메라 9개를 바꿨지만 모두 작동하지 않았고 급해서 빙빙 돌며 모두 “이곳은 정말 이상한데 여기는 설치하면 안 되는 곳이 아닐까?”라고 말했습니다.

오후 2시에 그들이 또 왔고 국장도 왔습니다. 국장이 급히 “어떻게 된 거야? 모두 원인을 찾아봐”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에 국장이 “여기는 일단 설치하지 말고 다른 곳에 설치하되 여기는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라고 말했습니다.

사부님의 보호하에 나중에 다시는 아무도 우리 가게 문앞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수련 환경은 점점 더 여유로워졌고 수련생들은 전체적으로 협력하는 가운데 모두 적극적으로 각자 법을 실증하고 사람을 구하는 지혜와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파출소장이 진상을 알고 대법제자에게 감사

한번은 우리 지역 10명의 수련생이 진상자료를 배포하다가 현지

경찰에게 납치돼 불법 구금됐습니다. 사람 수가 많고 압력이 컸기에 수련생을 구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당시 현지 수련생들의 심성이 아직 제한적이어서 대부분 나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안으로 찾아 근원을 깊이 캐내 자신에게 아직 사심과 두려운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인식했는데 이것은 진정한 나가 아니라 후천적으로 형성된 것이므로 즉시 제거해야 하며 순수한 마음으로 신성한 일을 해야 했습니다. 수련생의 일이 곧 제 일이므로 수련생을 구출해야 하고 파출소에 가서 진상을 알려 사람을 구해야 했습니다.

저는 비교적 정진하는 수련생 한 분을 찾아가 이 일을 상의했는데 그의 가족이 오늘 외지에 갔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제 마음은 아주 안정적이었고 저는 또 안으로 찾았습니다. 자신의 의존심이 너무 강하니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그것을 제거하고 본질적으로 자신을 바꿔야 했습니다. 비록 수련생을 구출하는 것이 수련생 가족의 일을 하는 것을 포함해 난도가 좀 있지만, 이것은 사부님께서 저에게 한 차례 심성을 제고할 좋은 기회를 마련해주신 것임을 알았습니다. 압력이 큰 상황에서 제가 사람의 이 껍질을 돌파할 수 있는지를 보시는 동시에 저의 의존심을 제거하고 판단 능력과 문제 처리 능력을 증강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사부님께 제자에게 지혜를 주시길 구했습니다.

이 관건적인 순간에 사부님께서 또 A 수련생을 안배해 저를 돕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서로 교류하고 서로 협력해 수련생을 구출하는 일을 안배했습니다. 10명 수련생의 가족들이 함께 모였고 우리는 가족들의 일을 잘 처리해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오후 2시 납치된 수련생의 가족들이 모두 오고 제가 그들과 함께 파출소에 가서 진상을 알리고 수련생을 구출하기로 했습니다.

오후에 우리는 파출소에 갔습니다. 소장은 불쾌한 표정으로 기세등

등하게 문을 막고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게 하며 “당신들은 뭐 하러 왔소?!”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사람을 데려가러 왔습니다! 소장님 먼저 화내지 마시고 제 말을 들어보세요. 그들이 왜 그랬는지 제 설명을 좀 들어보세요. 파룬궁수련생은 모두 좋은 사람입니다. 집에서는 모두 현숙한 아내이고 어진 어머니이며 아주 자격 있는 남편이고 아버지이며 가정이 모두 아주 화목하고 노인을 효도로 섬깁니다. 그들은 그저 공정한 말 한마디를 하고 좋은 사람이 되는 수련 환경을 원할 뿐입니다. 그런데 장쩌민(江澤民)이 허락하지 않아 1999년 ‘7·20’부터 파룬궁을 박해하기 시작했고 이렇게 좋은 공법을 수련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수혜자로서 더 많은 사람이 진상을 알고 중국공산당(중공)의 먹칠하는 거짓말을 분명히 알리려고 진상자료를 배포한 것이니, 이것은 사람을 구하는 것이며 그중에는 당신도 포함됩니다. 만약 사람들이 모두 진선인(眞·善·忍)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된다면 사회에 그런 부패범죄자들이 또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사람이 많은 게 좋지 않습니까?”라고 말했습니다. 소장이 “그만 말하시오. 당신도 같은 부류요. 당신들은 돌아가시오.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는 그들의 태도를 봅시다”라고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가족들과 함께 또 파출소에 가서 사람을 데려가러 왔습니다. 소장이 “그들의 태도가 모두 좋지 않고 서명하지 않아 이미 시 구치소로 보냈으니 당신들은 그곳에 가서 사람을 데려가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안 됩니다! 당신들이 납치했으니 당신들에게 석방을 요구해야 합니다. 왜 우리더러 시 구치소에 가서 데려가라고 합니까? 책임을 떠넘기는 것 아닙니까?”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당신들은 돌아가시오. 우리도 관할할 수 없소”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다시 그에게 자비롭게 진상을 알렸지만 그는 여전히 듣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또 갔습니다. 전날 밤에 저는 ‘전법륜’ 세 강을

공부해 정념이 충만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반 우리는 파출소에 도착했습니다. 소장은 바로 식사 중이었고 저는 “먼저 식사하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강대한 일념을 받았습니다. ‘소장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 오늘 저는 반드시 그가 진상을 듣게 해야 한다. 사부님 제자를 가지해 주십시오.’

소장이 식사를 마치고 우리에게 위층으로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위층 방에는 부소장과 지도원이 앉아 있었고 가족들을 포함해 우리까지 모두 열한 명이었는데 그중 두 명은 수련생이었습니다. 수련생은 정념을 받고 저는 진상을 알렸습니다. 처음에 분위기는 아주 긴장됐고 다른 공간에서는 정말로 한바탕 아슬아슬한 정사(正邪) 간의 대전(大戰)이었습니다.

소장이 “당신들 중 누가 먼저 오늘 온 목적을 말해보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무조건 사람을 석방해야 합니다. 그들이 구금된 지 20여 일이 됐고 가족과 이웃, 그리고 친척과 친구들 모든 사람이 걱정하며 모두 와서 사람을 데려가려 합니다. 절대 사람들을 분노하게 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을 위한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오늘 제가 오지 않았을 겁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도원이 “파룬궁은 반당(反黨)이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몇 번 왔는데 어느 말이 반당입니까? 파룬궁은 질병 치료와 건강 증진에 기이한 효과가 있고 사람들로 하여금 더 좋은 사람이 되게 합니다. 파룬궁은 진선인을 말하는 고덕대법(高德大法)입니다. 당신은 함부로 말할 수 없고 잘못 말하면 또 죄가 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도원이 또 “파룬궁은 X교(중공이야말로 진짜 사교)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2000년 공안부가 14가지 사교를 발표했는데 그 안에 파룬궁은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소장이 휴대폰을 들고 저를 향해 사진을 찍고 녹음을 했는데 제 정념은 아주 강했습니다. 저는 사람을 구하러 온 것이니

그런 수법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소장님 시 구치소에 전화 한 통 해주시면 우리가 가서 사람을 데려오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전화하려면 당신들이 직접 하시오. 우리가 돌을 들어 자기 발을 찰 수 있는 없소. 게다가 구체적인 주소를 우리도 모르오. 99년에 베이징에 당신들이 모두 갔는데 시 구치소를 당신들이 모른단 말시오? 당신은 오늘 45분을 말했는데 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소. 이제 거의 11시가 됐고 퇴근할 시간이니 당신들은 돌아가시오. 내가 공안국 지도자와 다시 상의한 후 당신들에게 통지하겠소”라고 말했습니다.

부소장과 지도원, 그리고 10명의 가족들이 모두 내려갔지만 소장은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지 않으니 저도 가지 않았고 반드시 그를 구해야 했습니다. “소장님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권고하겠습니다. 앞으로 다시 파룬궁 일을 만나면 절대 자신의 견해를 좀 바꾸십시오. 소장님의 이전 행위는 정말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것을 하늘이 보고 있습니다. 당신이 대법제자를 보호하면 하늘이 홍복(洪福)을 내려 가족과 자손 후대를 위해 많은 복을 쌓게 될 것입니다. 올바른 대도(大道)를 선택하면 길은 갈수록 넓어질 것입니다. 저는 진심으로 소장님을 위한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오늘은 정말 알겠소”라고 말한 후 저에게 두 손을 합장해 감사를 나타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경찰은 사람들을 차례로 석방했습니다.

법을 실증하고 중생을 구하는 것이 제일 우선

친정 어머니가 93살이 되셨습니다. 연세가 많아 걷는 것이 불편하고 한번은 다리도 부러지셨습니다. 당시 제 조카 두 명이 어머니를 병원에 데려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처리를 마친 후 의사가 약을 조금 처방하며 “연세가 많아 회복이 느리니 집에 가서 쉬세요”라고 말했습

니다.

처음에 큰언니가 한 달간 어머니를 모셨고 나중에 오빠가 “자매 넷이 모두 와서 어머니 일을 상의하자”라고 말했습니다. 오빠가 “오늘부터 한 사람이 한 달씩 모시는 게 어때? 어머니를 내버려둘 수 없잖아”라고 말했습니다. 모두 동의했고 저도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만약 제가 여기서 한 달을 산다면 진상을 알려 사람을 구하는 것은 어떻게 하나? 법을 실증하고 사람을 구하는 것이 제일 우선이지만 어머니도 내가 모셔야 하는데 어떻게 하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사부님께 제자를 도와주시길 청했습니다.

이때 큰조카며느리가 “셋째 고모님은 너무 바쁘시니 고모님 제가 대신 할머니를 모시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둘째 조카며느리도 “셋째 고모님 대신 제가 형님과 한 사람당 보름씩 맡겠습니다. 고모님이 시간이 있으시면 와서 할머니를 뵙기만 하면 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주 감동했습니다. 사부님께서 제자를 위해 이 일을 안배하셨고 마음속으로 한숨을 돌렸습니다. 이때 큰언니가 조카며느리들에게 “너희들은 아랫세대니 모실 필요가 없고 우리 (자매) 넷이 모셔야 해. 셋째 대신 내가 여기서 열흘 더 있을게”라고 말했습니다. 둘째 언니가 “나도 열흘 더 있을게”라고 말했습니다. 올케가 또 “남은 건 제가 다 맡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사부님께서 저를 위해 이 모든 것을 안배해주신 것에 감사했습니다. 저는 “저를 위해 책임과 의무를 분담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삼퇴(중국공산당의 3가지 조직 탈퇴)를 권해 19명을 탈퇴시켰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와 이 일을 남편에게 말했고 남편도 아주 기뻐하며 “앞으로 가게에서 물건을 팔아 번 돈은 모두 맛있는 것을 사서 그분들과 나누고 장모님께는 맛있는 것과 영양제를 사드려. 내가 지지할

게”라고 말했습니다.

“대법을 수련하는 사람은 정말 좋고 존경스러워요”

저는 지금 72살이며 4대가 함께 살고 있고 온 가족이 10명입니다. 남편은 수련하지 않지만 자주 저와 함께 대법 일을 하는 데 협력합니다. 딸은 진상을 알고 진상 지폐와 대법 진상 호신부(護身符)로 사람을 구합니다. 손자는 공무원이고 또 무술학교를 개설했습니다. 손녀는 대학생으로 학교에서 체육부장과 학생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손녀는 10살 때부터 온 가족을 대표해 매년 두 차례 사부님께 문안을 드리고 있고 지금 손녀는 이미 파룬따파를 수련하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제 수련을 지지하고 모두 ‘파룬따파하오, 찢싼런하오’를 외웁니다. 사부님의 새 경문이 발표된 후 저는 자주 온 가족에게 보여드립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우리집이 완벽하고 사람도 많고 재물도 풍성하며 복도 많다고 말합니다.

저는 시장에 가서 진상을 알리고 사람을 구하는데 어떤 사람이 “저는 당신들 대법제자를 10여 년간 관찰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무엇을 관찰했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들은 물건을 살 때 고르지도 따지지도 않고 절대 계산하지 않으며 싼값에 사지도 않고 또 돈을 1푼도 적게 주지 않습니다. 당신들 대법을 수련하는 사람은 정말 좋고 존경스러워요”라고 말했습니다.

제자는 사부님께 감사드립니다!

(명혜망 제22회 중국법회 원고)

20여 년간 연로한 수련생들과 함께 수련을 견지하다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저는 1995년 가을에 법을 얻은 연로한 대법제자로, 올해 일흔여섯 살이며 은퇴한 교사입니다. 은퇴할 때 저는 ‘내가 가진 약간의 지식으로 법공부에 어려움을 겪는 수련생들을 돕고, ‘높고’, ‘둔한’ 수련생들을 배척하지 말아야겠다. 그들이 모두 법공부를 하고 법을 더 잘 이해하며 법에서 빨리 제고하도록 돕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곧 우리는 법공부팀을 결성했는데, 처음에는 다섯 명이었지만 나중에는 일곱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몇몇 연로한 수련생들은 나이가 다 저보다 많았고, 그녀들에게는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는 게 별로 없었는데, 어떤 이는 초등학교 2, 3학년, 어떤 이는 초등학교 4학년을 다녔으며, 세 명의 수련생은 아예 학교를 하루도 다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들에게는 모두 ‘이 법은 정말 좋고 너무나 소중하니, 나는 배워야겠다’는 똑같은 바람이 있었습니다. 제게 수련생을 돕고 싶은 바람이 있었기에 사부님께서 우리가 이 성스러운 인연을 맺도록 안배해주셨습니다. 아래에 저는 그중 세 분의 수련생 언니와 함께 수련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A 언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녀를 처음 만난 것은 10여 년 전 어느 날이었는데, 그녀는 우리팀이 연로한 사람들이 모인 법공부팀이라는 말을 수련생에게서 듣고 찾아왔습니다. 그녀를 데려온 수련생이 그녀의 상황을 소개했고, 저는 ‘기왕 수련생이 단체 법공부에 참여하고 싶어 하니 환영해야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말은 쉬웠지만 막상 하려니 정말 어려웠습니다. A 언니는 그때 70

대(현재 아흔한 살)였고, 학교를 하루도 다니지 않았으며, 게다가 귀가 아주 어두워(거의 귀가 먹어) 법공부에 어려움이 더했습니다. 그녀는 단체 법공부에 참여한 적이 없었고, ‘전법륜(轉法輪)’은 비록 읽을 수는 있었지만 틀리게 읽는 곳이 아주 많았습니다. 때로는 한 문장에 두세 개의 오류가 있었고, 고쳐주려 해도 그녀는 잘 듣지 못했습니다. 저는 하는 수 없이 그녀를 제 곁에 앉혔습니다. 그녀가 틀리게 읽으면 저는 그녀를 툭 쳐서 다시 읽게 했습니다. 만약 A 언니가 스스로 고칠 수 있으면 좋았지만, 고치지 못하면 제가 책의 글자를 가리키며 가르쳐주고 고쳐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니, 짧은 한 문단도 3~4분이 걸렸고, 긴 문단을 만나면 더욱 인내심을 가져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법을 읽을 때도 그녀는 잘 듣지 못해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매번 책장을 넘길 때마다 저는 그녀를 툭 치고 책장 넘기는 동작을 해야 그녀가 비로소 책장을 넘겼습니다.

처음에는 속으로 ‘이러다 발목 잡히는 거 아닐까? 원래 우리 팀 법공부가 느린데, 이러면 더 느려지잖아?’라고 생각했습니다. 좀 조급해졌고 다른 수련생들도 좀 싫어하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제때에 제 마음가짐을 바로잡고 팀 수련생들에게 말했습니다. “A 언니는 우리 연로한 팀을 보고 온 거고, 법공부하러 온 거예요. 다른 팀이 어떻게 하든 우리는 상관 말고 대법의 요구대로 해야 해요. 수련생을 싫어하면 안 돼요.”

우리 팀은 오전에 나가서 진상을 알리고 오후에 법공부를 했습니다. 법공부 전에, 모두가 제게 삼퇴(중국공산당의 3가지 조직 탈퇴) 명단을 하나하나 알려주면, 제가 일괄적으로 정리해서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A 언니도 제게 그녀의 삼퇴 명단을 알려줬는데, A 언니는 글을 쓸 줄 몰랐지만 모든 이름을 똑똑히 기억했고 탈퇴 내용도 모두 분명했습니다. 때로는 서너 명의 이름을 말할 때도 있었는데, 우리

모두는 그녀를 보며 기뻐했습니다. 이후 그녀의 청력은 더 나빠졌고 여든한 살 되던 해에 그녀는 이 법공부팀을 떠나 집에서 혼자 공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수련생들이 법을 읽는 것을 전혀 들을 수 없었고, 가족들도 그녀가 길을 건너는 것을 위험하다고 걱정했습니다. A 언니는 비록 팀 법공부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매번 사부님의 새 경문이 나올 때마다 저와 수련생들은 제때에 그녀에게 가져다주었고, 그녀도 가끔 팀에 들러 모두를 보곤 했습니다.

2015년 5월, 사부님께서 새로운 ‘논어’를 발표하셨습니다. 우리는 즉시 A 언니에게 ‘전법륜’을 가져와 ‘논어’를 교체하라고 알렸습니다. 교체할 때, 저는 수련생들의 책 페이지가 떨어져 나가거나 낱장으로 흩어지거나, 직접 실로 다시 묶었지만 책장이 가지런하지 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A 언니의 책은 보관 상태가 더 나빴습니다. 저는 수련생들과 상의해 제가 관련 수련생을 찾아 책을 다시 제본해 오기로 했습니다. 모두들 매우 기뻐했고, 총 다섯 권의 책을 제본해야 했습니다. 책을 다시 가져왔을 때 모두들 책이 흩어지지 않고 가지런해졌으며, 어떤 낡은 표지는 새것으로 바뀐 것을 보고 매우 만족했습니다. 수련생들은 자신의 책을 알아봤지만, A 언니는 자기 책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 것보다 더 깨끗하게 보관된 책 한 권이 자기 것이라고 우겼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이 책은 다른 언니의 것이며, 그 언니가 오늘 오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책을 바꿔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A 언니는 그제야 마지못해 자기 책을 가져갔습니다.

이틀 후, A 언니가 또 와서 제게 말했습니다. “나는 꼭 그 책을 가져야겠어요. 내 책을 줘요.” 저는 그녀에게 그 책은 절대 당신 것이 아니라 다른 언니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수련생도 그녀에게 “당신이 가져간 책이 당신 거예요, 당신이 잘못 기억하는 거예요”라고 말했습니다. 뜻밖에도 셋째 날, A 언니가 또 와서 만나자마

자 제게 말했습니다. “나는 꼭 그 책을 가져야겠어요.” 저는 화가 ‘욱’ 하고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래도 수련인인가? 자기 책은 누르고 더럽게 만들어 놓고, 남의 책이 자기 것보다 깨끗한 걸 보니 갖고 싶은 건가? 다들 그녀가 가져간 게 자기 책이라고 말해줘도 믿지 않으니, 정말 말도 안 돼!’ 저는 A 언니에게 큰 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저 자신도 그렇게 화가 나고, 그렇게 큰 소리로 점점 더 많은 말을 하는 것에 놀랐습니다. A 언니는 제 상태에 놀라 중얼거리며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내 책을 돌려받고 싶었을 뿐인데 당신은 왜 그렇게 화를 내요?” 그러고는 그녀는 떠났습니다.

이틀이 지나 저는 냉정을 되찾고 A 언니가 평소에는 이렇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2014년에 제가 농촌에 새해 달력을 보내러 갔다가, 진상을 모르는 사람의 신고로 15일간 불법 구금된 적이 있습니다. A 언니는 제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숨을 헐떡이며 법공부팀으로 달려왔습니다. 방에 들어와 저를 보더니 바로 사부님의 법상 앞으로 가서 엎드려 세 번 절을 했습니다. 저와 팀 수련생들은 그녀의 그런 모습을 보고 모두 눈물을 흘렸고, 그녀가 사부님께서 제자를 보호해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신 것에 감사하고 있음을 모두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A 언니는 왜 그랬을까요? 사부님께서 ‘전법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순이 생길 때 갑자기 나타나지만,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닌데, 그것은 당신의 心性(심성) 제고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오직 자신을 연공인(煉功人)으로 여기기만 하면 당신은 그것을 잘 처리할 수 있다.” 이 일이 나타난 것은 제가 제고해야 할 요소가 있었기 때문이며, 표면적인 옳고 그름을 보거나 사람의 마음으로 문제를 보고 사람의 이치로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됩니다. 평소 이 연로한 수련생들이 저를 매우 존중한다고 느꼈는데, 이번 A

언니의 표현은 저를 불신하는 것이어서 억울하고 마음이 불균형했습니다. 저는 진지하게 안으로 찾았고, 제가 인(忍)을 실천하지 못하고 연로한 수련생에게 큰 소리로 쏘아붙였으며, 더욱이 선(善)을 실천하지 못했음을 알았습니다. 저는 제 사심을 보았습니다. 본래 제 헌신은 조건 없는 것이라 여겼지만, 사실 제가 이 연로한 수련생들에게 보인 인내심과 선한 마음은 모두 조건적이었습니다. 이것은 흥정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와 흥정하는가? 수련생과? 사부님과?’ 연로한 수련생들을 잘 이끌고, 손에 손을 잡고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은 바로 저의 역사적인 서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동수(同修)이기 때문입니다. 저의 부족함을 깨달은 후 저는 서둘러 연로한 수련생의 집으로 찾아가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다음은 B 언니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올해 여든다섯 살이며 팀의 가장 초창기 멤버 중 한 명입니다. 따져보니 저와 B 언니는 알게 된 지 21년이 되었습니다. B 언니는 성실하고 매사에 진지하며 고생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녀 역시 귀가 어두웠는데, A 언니보다는 조금 나아서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조금은 알아들었지만 전부는 아니었고, 뜻을 잘못 이해하기 쉬워 늘 대화에 끼어들어 불필요한 오해를 사곤 했습니다. 그녀는 어려서 부모를 잃고 친척과 함께 살았기에 말수가 적고 조심스러운 성격이 형성돼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닥칠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저는 늘 그녀를 위로했고 팀에서도 자주 “대법이 우리를 알게 했고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었으니, 수련생을 소중히 여기고 이 인연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2007년경으로 기억합니다. B 언니가 며칠 동안 법공부에 나오지 않아 제가 다른 수련생들에게 물었지만 아무도 상황을 몰랐습니다. 그날 법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우연히 B 언니를

만나, 왜 며칠간 법공부에 나오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한쪽으로 끌고 가더니 울면서 말했습니다. “집에 큰일이 났어요.” 알고 보니 B 언니의 딸과 사위가 실직한 후 오락실을 차렸는데 장사가 잘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 공상국에서 돈을 요구하러 왔는데 돈을 내지 못하자 게임기 몇 대를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사위가 화김에 건물에서 뛰어내려 자살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B 언니 가족에게는 정말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고, 그래서 그녀는 매일 딸 곁에서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저는 당시 그녀를 몇 마디 위로하고, 다음 날 과일을 사들고 B 언니의 집으로 가서 그녀와 법에 입각해 교류했습니다. 사람의 생사는 운명에 달려 있으니 우리 수련인은 그것에 얽매어서는 안 되며, 빨리 그늘에서 벗어나 법공부팀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생활에서는 딸과 외손자를 도와 그들이 정신적으로 의지할 곳을 찾고 빨리 기운을 차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B 언니는 다시 팀 법공부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착실한 분과 저 사이에도 심성을 단련하는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2019년경, B 언니가 진상을 알리고 사람을 구할 때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은 파룬궁이라는 말을 듣자 B 언니에게 “당신네 파룬궁의 우두머리가 돈을 다 미국으로 빼돌렸지” 등 비방하는 말을 했습니다. B 언니는 놀랍게도 이 거짓말들을 다 곧이들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이 말을 다른 두 수련생에게 전하면서 그녀들에게 이 말을 제게 전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눈에는 제가 이 지역 책임자 중 한 명이었기에 바로 ‘돈을 빼돌린 그 우두머리’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수련생이 농담처럼 이 말을 제게 전했고 저는 당시 불같이 화가 났습니다. 속으로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당신은 모르는가? 돈 문제에 있어서 남의 돈 한 톨 탐한 적 없고 늘 내놓기만 했어. 우리집의 작은 자료점도 다 내 돈으로 소모품을 사고 자료를 만들어 우리 팀 수련생들에게

사용하게 했지. 매일 밤 10시까지 바쁘게 일하고 다음 날 모두에게 나눠주면서도 한 번도 돈을 요구한 적 없고, 이 자료를 내가 만들었다고 말한 적도 없이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어. 사부님께서는 설법에서 여러 차례 수련인은 돈을 모으거나 물건을 쌓아두지 않고 모금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 정말 B 언니에게 묻고 싶네. 당신은 날 어떤 사람으로 보는 거지?’ 저는 겉으로는 참았지만 며칠 동안 그녀와 말도 섞기 싫었고, 말을 걸어도 통명스럽게 대하며 이전의 평정심을 잃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나서야 저는 B 언니가 유언비어를 믿은 것이고, 저 역시 사악의 계략에 빠져 수련생들 사이에 간격을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세히 안으로 찾으며 제게 좋은 말을 듣기 좋아하는 마음, 다른 사람의 평가를 매우 중시하는 명예욕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당연하게도 ‘내가 당신에게 잘해주니 당신도 나에게 잘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공산당 당문화의 쟁투심,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는 마음, 질투심이 매우 강했습니다. 찾다 보니, 제 마음속 원망의 얼음이 녹아내렸고 B 언니가 예전처럼 사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즉시 B 언니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그녀에게 통명스럽게 대해서는 안 됐다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그녀에게 사회의 악의적인 사람들이 퍼뜨리는 유언비어를 믿지 말라고, 우리 사부님께서는 한 번도 수련생에게 돈을 요구하신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면 팀에서 공개적으로 말하고, 다 함께 법에 입각해 교류하며 공동으로 제고해 각자의 수련에 불필요한 교란을 가져오지 않도록 하자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동수이기 때문입니다. B 언니는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마지막으로 C 언니 이야기입니다. C 언니는 올해 여든한 살로, 제가 가장 일찍 알게 됐고 가장 많이 협력한 수련생입니다. ‘7·20’ 이

전에, 우리는 같은 연공장에서 아침에는 연공하고 저녁에는 법공부를 했습니다. 비록 그때는 서로 이름도 모르고 한마디 말도 섞지 않았지만, 서로가 대법 수련생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악이 하늘을 뒤덮을 듯한 탄압을 시작한 후, 저와 C 언니, 그리고 다른 두 명의 수련생이 법공부팀을 결성했습니다. 그때 저는 아직 직장에 다니고 있어서 매주 일요일을 이용해 법공부를 했는데, 하루에 서너 강씩 법공부를 하고 법리에 대해 교류했으며, 저녁에는 밖에 나가 진상 자료를 배포하거나 진상 스티커를 붙였고, 때로는 현수막도 걸었습니다. 그 몇 년간, 우리는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도우며 촉진하면서 그 암울했던 시기를 헤쳐 나왔습니다. 제가 은퇴한 후 연로한 사람들을 위한 법공부팀을 만들면서, 우리 몇 사람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2010년경, C 언니도 우리 연로한 법공부팀에 왔습니다. 그 몇 년간, 우리 지역 수련생들은 자주 차를 타고 농촌에 가서 진상 자료와 새해 달력을 배포했는데, 저와 C 언니도 참여해 집집마다 달력을 나눠주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는 주로 읍내에서 진상을 알렸는데, 두 사람의 발길은 읍내의 크고 작은 거리와 골목, 그리고 외곽 구석구석까지 미치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특히 매년 진상 달력을 배포할 때면 우리는 달력 두 보따리와 진상 자료, 장식품, 호신부(護身符)를 제 자전거에 싣고 다녔습니다. 우리는 보통 걸으면서 말했는데, 주로 제가 말하고 C 언니가 정념을 발하며 모든 인연 있는 사람에게 진상을 전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C 언니는 늘 다리가 아프다고 했고 많이 걸으면 발바닥도 아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매년 달력을 배포할 때가 되면, 제가 C 언니에게 갈 수 있냐고 물었고 C 언니는 늘 단호하게 “가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전거를 밀고 길을 걸을 때 자전거가 무겁게 느껴졌는데, 알고 보니 C 언니가 뒷좌석을 손으로 잡

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렇게 하면 그녀는 좀 더 가볍게 느꼈겠지만 저는 길을 걷는 내내 조금 힘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와 동행하는 것이 매우 피곤하게 느껴졌습니다. 한번은 길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정말 자전거를 타고 앞으로 나아가 힘을 좀 아끼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면 그녀를 뒤에 남겨두게 돼, 저는 하는 수 없이 인내심을 갖고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걸었습니다.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C 언니를 귀찮아하고 있잖아?’ 읊 내에는 진상을 알리는 수련생이 많다고 생각해 외곽으로 나갔는데, C 언니는 거의 여든 살 노인임에도 저와 오전에 함께 법공부를 하고 오후에는 10km가 넘는 길을 왕복했습니다. 때로는 농부들이 밭에서 일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비틀거리며 밭으로 들어가 달력을 전해주었는데, 그녀는 힘들다거나 피곤하다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좋은 수련생입니까! 이것이 바로 수련인이고 속인이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어찌 귀찮아할 수 있겠습니까? 이후 저는 C 언니에게 “자전거 잡으세요, 제가 끌어줄게요”라고 말했습니다. 때로 시골의 작은 길을 걸으며 곁에 있는 C 언니를 보면 제 마음이 훨씬 든든해졌고, 수련생이 있다는 것이 정말 좋다고 느꼈습니다. 우리 둘은 때로 걸으면서 대법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큰 소리로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찰싼런하오(真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라고 외쳐, 주위의 생명들이 듣게 했습니다.

C 언니는 방향 감각이 없고 길을 몰라서 진상 스티커를 붙이러 나가거나 진상을 알리러 나갈 때면 어디가 어딘지 몰랐습니다. 매번 돌아올 때마다 저는 C 언니를 그녀의 집에서 멀지 않은 곳까지 데려다 주고, 그녀에게 여기가 어디인지, 어느 쪽으로 가야 집이 나오는지 알려주고, 그녀가 문제없이 갈 수 있음을 확인한 후에야 비로소 그녀

와 헤어졌습니다. 저는 ‘수련생이 나와 함께하기를 원한다면 나는 절대로 수련생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작년 설이 지난 후, C 언니가 우리집에 와서 그녀의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사는 수련생이 자기와 법공부를 하자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집에 오는 것보다 노정의 3분의 2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집은 읍내 동쪽에, C 언니 집은 읍내 서쪽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C 언니가 다른 수련생에게 가는 것을 생각하니, 비록 좀 아쉬웠지만 그녀가 확실히 많은 수고를 덜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올해 설이 지난 후, 수련생으로부터 C 언니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자주 ‘죽음’ 등 부정적인 말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결국 그녀와 법공부를 하던 수련생의 가족이 그 말을 듣고 책임을 지게 될까 봐 C 언니가 법공부하러 오는 것을 막았고, C 언니는 집에서 혼자 공부하게 됐습니다. 최근 제가 그녀를 보러 갔는데 그녀의 상태가 예전보다 훨씬 못했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매일 무엇을 하냐고 물으니 그녀는 법공부하고 정념을 발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C 언니가 제게 정념을 어떻게 발하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매일 정념을 발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또 저한테 물으세요?”라고 말하자 그녀는 생각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병엽 난 속에 있는 연로한 수련생이 법공부 환경이 없고 수련생 간의 교류가 없으면, 구세력이 바로 그녀를 끌어내려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려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난 모른 체해서는 안 되며, 내가 수련생을 돕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내가 닦아 없애야 할 사람 마음이 있고, 수련인으로서 마땅히 짊어져야 할 책임이 있다.’ C 언니의 집은 엘리베이터가 없는 8층 높이의 다락방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70대가 넘는 저도 그렇게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지 않았고, 게다가 여름에는 문을 열자마자 찜통 같은 열기가 혹

끼쳐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수련인이고 수련인에게는 나이 제한이 없으며, 수련 환경을 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수련생이고 마땅히 서로 돕고 함께 제고하며, 수련의 기연(機緣)을 붙잡아 함께 역사적 대원을 완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함께 수련해야 마음이 한곳에 있을 수 있으니 공동정진 서로 도우면서 신이 알려준 목적지로 걸어가세나”(홍음4-같은 길).

사부님께 감사드립니다! 수련생 여러분 감사합니다!

(명혜망 제22회 중국법회 원고)

■ 박해당해 사망한 파룬궁 수련생 중에 이름이 확인된 인원수: 5283명

■ 삼퇴 인원수

2004년 12월 3일부터 탈당(단/대)한 인원수: 4억 5453만 5863명

■ 인터넷 봉쇄를 돌파해 明慧網을 보려면

프리게이트(自由門) PC판: <https://j.mp/fgp88>

프리게이트 안드로이드VPN: <https://j.mp/fgv88>

울트라서프 안드로이드: <https://s3.amazonaws.com/693/um.apk>

울트라서프(無界) PC판: <https://s3.amazonaws.com/693/u.exe>

明慧網은 1999년 6월에 설립했고, 가장 먼저 파룬궁 진상 정보를 수집·정리·발표하며, 중국의 박해 환경에서 대법제자의 수련환경을 지켜주고 보완해준다.